

잡지 『새벽』의 편집진과 편집 체제에 대한 연구

윤영현*

국문초록

본고는 잡지 『새벽』이 1950년대의 담론장에서 가졌던 실제적 위상과 의의에 비해, 『새벽』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약소하기에 『새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새벽』에 대한 큰 볼륨의 ‘매체 연구’(‘연구 저서’ 혹은 ‘학위 논문’)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적 소론(小論)’에 해당한다. 따라서 『새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연구사 검토를 통해 문제 제기하고 『새벽』의 역사적, 당대적 위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본고는 ‘『새벽』지의 편집진과 편집 체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한다. 본고의 목적은 ‘『새벽』지의 편집진과 편집 체제’라는 항목을 정밀하고 상세하게 조사·연구하는 데에 있다.

『새벽』의 편집 체제는 크게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1954년 6월 창간호부터이고, 2기는 1959년 10월 혁신호부터이다. 『새벽』 1기는 ‘사장 주요한, 주간 김주홍, 편집 김용제’ 체제였고, 2기 혁신호 체제는 ‘사장 장리욱, 주간 김재순, 발행인 주요한’의 체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외에 신동문과 이어령 역시 『새벽』 2기 혁신호 체제의 문학관을 통해 ‘저항적 읽기 주체의 형성 기획’을 시도한 『새벽』지 편집진의 일원이었다. 『새벽』의 편집진은 서북 출신이라는 지역 연고에서는 『사상계』와 유사성을 지니지만 세대적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지닌다. 『새벽』의 창간 초기 편집진(사장과 편집장)은 친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현대문학 전공)

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병 윗세대 지식인들’이었다. 본고는 이 점을 『새벽』의 편집진들이 가진 당대적 맥락에서의 특성이라고 논의하였다. 『새벽』의 편집진과 편집 체제의 수립 및 변화과정과 『새벽』 편집진의 당대적 맥락에서의 여타 지식인 그룹과의 차이점을 살핀 작업은 『새벽』지의 매체 특성과 매체 이념을 해석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서북계 학병 윗세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도산 안창호와 홍사단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잡지 『새벽』은 약 6년의 발간 기간 동안 담론장에서 ‘수양·도덕론적 정신주의’(도산 정신)와 1950년대의 담론장의 시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적 자유민주주의’를 혼합한 ‘수양·도덕론적 자유민주주의’를 전개해 나갔고, 2기 혁신호 체제부터는 특히 저항 주체를 창출하기 위한 강경한 담론 기획을 전개해 나갔다. 『새벽』은 ‘수양·도덕론적 자유민주주의’와 ‘저항 주체 창출 기획’을 통해 제1공화국의 부패와 폭정에 맞서서 담론적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새벽, 사상계, 1950년대, 4.19, 주요한, 도산 안창호, 김용제, 장리욱, 김재순, 신동문, 이어령

1. 들어가며

『새벽』은 1954년 6월에 창간되어 1960년 12월 호까지 발행된 종합잡지이다. 창간 시 『새벽』의 발행인 겸 사장은 주요한이었으며 『새벽』의 편집 및 간행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는 장리욱, 김용제, 김주홍, 김재순, 신동문, 이어령 등을 꼽을 수 있다. 『새벽』은 창간호 및 1958년 도의 일시적 침체기의 몇 호를 제외하고는 ‘정치’, ‘경제’, ‘교육’, ‘미국’, ‘혁명’, ‘민주’, ‘농업’ 등¹⁾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논설란²⁾과 소설, 시, 시

1) 『새벽』지 총목차 단어(개념)별 빈도수 순위- 1위:한국(87회), 2위:정치(59회), 3위:문제(45회), 4위:사회(43회), 5위:경제(41회), 6위:교육(37회), 7위:특집(36회), 9위:미국(33회), 10위:민족(32회), 11위:자유(31회), 공동 13위:혁명, 학생(29회), 공동 15위:

조, 비평, 수필, 희곡, 동화가 실린 문예란³⁾으로 구성되었다. 문예란은 항상 잡지의 후반부에 배치되었다. 『새벽』이 시사면과 문예면을 겸비한 “종합문화교양지”⁴⁾라면 이와 같은 구성 때문이다. 따라서 『새벽』을 보는 것은 해당 잡지가 간행된 기간 한국 사회의 거시적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면과 문학을 동시에 이해하게 해 준다.

『새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새벽』이 전후 언론계 및 문학계에서 차지한 실제적인 위상에 비해 그것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약소하기 때문이다. 정진석과 김건우에 따르면, 『새벽』은 1950년대의 대표 잡지인 『사상계』와 “쌍벽”⁵⁾을 이루었던 잡지이다. 두 학자의 언급이 어느 정도

민주, 국제(26회), 35위; 농업(5회).

- 2) 『새벽』지 전체 호수의 게재 텍스트 수는 1503개이며 이 중 ‘논설’ 텍스트는 총 1057개로 전체 텍스트 수의 70.32%를 차지한다.
- 3) 『새벽』지 전체 호수의 문학란 게재 텍스트(‘문학’ 텍스트) 수는 총 446개로 『새벽』지 전체 호수 모든 텍스트 수 중 29.67%를 차지한다. 『새벽』지의 문학란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문학란은 ‘소설’, ‘시’, ‘시조’, ‘비평’, ‘수필’, ‘희곡’, ‘동화’의 7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새벽』지 전체 호수에 ‘소설’은 100개, ‘시’는 122개, ‘시조’는 29개, ‘비평’은 76개, ‘수필’은 115개, ‘희곡’은 3개, ‘동화’는 1개가 실려 있다. ‘소설’, ‘시’, ‘시조’, ‘희곡’, ‘동화’는 모두 장르명이 명기되어 있어서 분류하기 어렵지 않았다. ‘수필’은 문학 장르 중 성격상 그 범주 구분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새벽』지는 모든 ‘수필’ 텍스트 앞에 ‘수필’이라는 글자가 명기(明記)되어 있기에 구분이 어렵지 않았다. 본 논문은 문학 장르를 구분할 때에, 『새벽』지에 명기된 장르 명칭을 따랐다. ‘비평’의 경우는 ‘문학 비평’을 의미한다. 이는 가령 ‘김형석’, 「정치인의 양식을 구한다 - 정치평론의 역사적 원리」, 『새벽』 1958.1.와 같은 ‘정치’를 다룬 ‘논설’ 텍스트와는 다른, ‘문학 및 문학계’를 대상으로 한 ‘비평’ 텍스트를 의미한다. 예컨대, 「최재서, 「시적 체험-문학 원론 제4장」, 『새벽』 1955.11.」; 윤고종, 「문예 시평」, 『새벽』 1956.1.」, 「이봉래, 「문학과 문학상(文學賞)의 경위」, 『새벽』 1956.5.」 같은 것들을 ‘문학 비평’의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
- 4) 「편집기(編輯記)」, 『새벽』 1954.9. 6쪽.
- 5) 정진석, 「잡지변천사」, 『신문연구』 68, 1998, 57쪽. “주요한이 발행하던 홍사단 계통의 『새벽』은 한 때 『사상계』와 쌍벽을 이루던 종합잡지였다.”; 정진석, 「인물로 본 한 국언론 100년(13)-잡지 출판인들」, 『신문과 방송』 260, 1992.8, 70쪽. “『새벽』은-인 용자) 자유당 말기 ‘사상계’와 쌍벽을 이루는 종합잡지로 명성을 날렸다.”; 김건우는 이와 같은 정진석의 언급을 토대로 『새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확대되어 가는 지식인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잡지로 『사상계』, 『새벽』, 『세계』 등의 종합 월간지들이 있었다. 『세계』는 외국의 학술과 사상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새벽』은 장이옥을 발행대표로 하여 신동문, 김재순 등의 편집진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홍사단 계열의 기관지였다. 실질적으로는 주요한이 발행하던 『새벽』은 한때 『사상계』와 쌍벽을 이루던 종합잡지였다. 이 잡지는 원래 1926년 5월 창간되어 1932년

타당성을 가지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사상계』와 『새벽』에 대한 연구의 양을 비교해 보면 『새벽』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사상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학술지 소논문, 학위 논문을 합쳐 100건 이상이 검색되는 반면, 『새벽』지 연구는 매우 소략하다.⁷⁾ 물론 단순히 어떠한 매체나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절대적인 양이 적다고 해당 매체나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긴절(緊切)히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새벽』지는 분명 매체 연구 방법론으로 접근해 연구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선 『새벽』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층을 겨냥한 종합잡지’⁸⁾라는 점에서(1955년 1월에 창간된 『현대문학』과

까지 통권 40호를 발행한 <동광>의 후신이었다.”(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45-46쪽.): 이름 표기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장리옥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인 ‘張利郁’을 ‘장이옥’이 아니라 ‘장리옥’이라 서명한다.(장리옥, 『백 년 전의 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18쪽. 친필 서명.) 따라서 본고는 ‘張利郁’을 지칭할 때 ‘장리옥’이라고 표기한다.

- 6) 김효재, 「1950년대 종합지 『새벽』의 정신적 지향(1)」,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8.; 이종호, 「1960년대 <세계전후문학전집>의 발간과 전위적 독서 주체의 기획」, 『한국학연구』 4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5.: 김효재의 논문은 잡지 『새벽』 자체를 ‘매체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작성된 첫 연구로 보인다. 이종호의 연구는 『새벽』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논문의 일부인 3장에서 “종합교양지 『새벽』”의 “전위적 독서 주체의 기획”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당대 『새벽』지가 전개하고 있었던 기획들 중의 하나를 잘 알게 해준다.
- 7) 『사상계』 연구는 많은데 『새벽』 연구는 적은 이유는 다소 의아하지만, 의외로 다음의 간단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사상계』는 도서출판 ‘사상’에서 인쇄한 영인본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필자도 소장 중), ‘동방미디어(주)’라는 데이터베이스 제공 회사에서 각 대학 도서관들과 제휴하여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전체를 매우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새벽』은 영인본이 출판되어 시중에 팔린 적이 없다. 도서관에서 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영인본을 소장하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인훈의 『광장』의 개작에 대한 연구 논문들(『새벽』에 대해 간략하나마 언급한 논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최인훈의 『광장』의 개작’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들 수 있다. 최인훈의 『광장』의 초판본이 새벽 1960년 11월 호에 실렸었기 때문이다.) 중 하나인 「『광장』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새벽』에서 해당 논문의 저자는 “『새벽』판은 구해 볼 수가 없었다.”(최윤경, 「『광장』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대문학이론연구』 5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58쪽.)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새벽』지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그만큼 쉽지 않아 왔음을 알게 한다.
- 8) 정진석(언론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정론 잡지”, “의견 잡지”(정진석, 『한국 잡지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8쪽. “『사상계』와 『새벽』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학생 혁

1954년 4월에 창간된 『문학예술』은 문학전문 잡지(문예지)라고 해야 한다. 1952년 11월 창간된 『학원』은, “당시 국내 최대 일간지인 동아일보”의 “5만부” 판매부수의 2배인 “10만부”⁹⁾에 가까운 독자를 확보했던 큰 영향력을 가진 잡지였으나, 중고등학생을 교양, 계몽하기 위한 목적의 청소년 잡지였다.) 『새벽』을 연구하는 것은 당대 지식인계의 담론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의 지식인계의 담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1950년대의 ‘이상적(理想的), 원리적(原理的) 자유민주주의 담론’, ‘반(反)이승만, 반(反)자유당 담론’ 및 소위 “야당지”¹⁰⁾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군의 저항적인 민주주의 담론(주로 『사상계』, 『새벽』¹¹⁾ 및 <동아일보>(1950년대 당시 민주당 구파 대변), <경향신문>(1950년대 당시 민주당 신파 대변)¹²⁾ 및 ‘조봉암과 진보당을 위시한 혁신계통의 논조’)이 4.19를 낳는 데에 크게 일조했기 때문이다.¹³⁾ 한국의 항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4.19를 낳

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정론 잡지이자 의견 잡지였다.”

- 9) 장수경, 『『학원』의 문학사적 위상 연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논문, 2010, 55쪽.
- 10) 박동운, 『비교 연구-신문의 생태』, 『새벽』 1960.4. 55~56쪽. 당시 “홍익대 신문학 교수”였던 박동운의 분류에 의하면 1950년대부터 4.19 전까지 신문은 자유당 정권에 대해 어떠한 논조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야당지, 중립지, 여당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야당지”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립지”는 <한국일보>, <조선일보> “여당지”는 <서울신문> (“최대 여당지”), <연합신문> (“여당적”)이었다.
- 11) 『새벽』의 사장인 주요한은 민주당 신파로서 서울 중구 갑구에서 국회의원(1958년 4대 총선)을 지냈으며, 경향신문 폐간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 ‘여적 사건’의 ‘여적’(폭력 혁명을 통해 다수당인 자유당의 횡포에 맞서자는 글)을 쓴 장본인이다.(주요한, 『주요한 문집-새벽 I』, 요한기념사업회, 1982, 85쪽, 94쪽.) 따라서 자연히 『새벽』은 ‘야당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었으며, 원리적, 이론적인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 당대 현실 정치의 ‘미달된 자유민주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제문제연구소의 간판을 그대로 걸고 한편 <동아>, <경향> 두 신문사의 사설을 쓰면서 『새벽』 잡지를 창간했다.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므로 자연히 내가 쓰는 글이 야당적 색채를 띠게 된 것은 피할 수 없었다.(주요한, 『주요한 문집-새벽 I』, 위의 책, 82쪽. 강조는 인용자.)
- 12) “염무웅: 민주당 신파가 경향신문이고 민주당 구파가 동아일보조.”(『좌파: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김병익, 김승옥, 염무웅, 이성부, 임현영, 최원식』,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2002, 40쪽.)
- 13) 1950년대 지식인들의 저항적 담론과 그것을 실어 날랐던 언론 매체들이 4.19의 발생에 크게 일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호섭, 김기석·강일국, 이한빈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1950년대에 ‘교육’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1945년 대학생 수는 7,819명이

는 데에 ‘이론적·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 ‘1950년대 지식인계의 담론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본다.¹⁴⁾

있으나 1960년 대학생 수는 92,930명으로 1,1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 수도 982% 증가했다.(김호섭, 『4월혁명의 사회심리적 발생요인』, 『4월민주혁명의 재조명』, 공동체, 2010, 54쪽.) “전쟁(6.25-인용자)이 발발한 후 대학은 ‘전시연합대학’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51년 2월 18일 ‘대학생 징집연기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입대가 유보되었고, 대학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생의 병역면제 혜택은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폭증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1950년대 전반기 고등교육에 재학하는 학생 수는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김기석·강일국, 『1950년대 한국 교육』, 문정인, 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545쪽.) 이는 4.19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문해력(literacy)이 높아져 『사상계』나 『새벽』,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반자유당 성향의 언론 매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의 절대적인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젊은층의 교육 수준과 문해력이 중년, 노년층에 비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통계를 보면 1960년 당시 20-29세 사이의 인구 중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은 233,965명으로 40-49세 사이의 인구 중 대학교육을 받은 자(32,489명)의 약 7.5배에 달하며 50-59세 사이의 인구 중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의 수의 20배 이상에 달한다.(Hahn-Been Lee,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East-West Center Press, University of Hawaii, 1968, 110p.) 이와 같은 세대 간 교육 수준의 현격한 격차는 자연스럽게 기득권 지배층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과 젊은 세대의 기득권 세대에 대한 저항을 야기할 만한 사회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한빈은 4.19가 발생하는 데에 “대학-언론 연계(university-press nexus)”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4.19는 “사회의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거대한 사회적 사건”이었다고 말한다.(Hahn-Been Lee, 위의 책, 117쪽.) 1950년대의 교육의 팽창, 젊은이들의 교육 수준의 증대와 반정부적 언론 간의 “연계”(“nexus”(위의 책, 117쪽.))가 4.19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좌담회의 내용도 참조할 수 있다. “김승욱: 실제로 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때보다도 (이승만 정권 때에-인용자) 훨씬 언론자유가 있었죠/ 임헌영: 언론의 힘이 참 강했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 경향신문.... 신문의 힘이 대단했어요/ 김승욱: 나는 『사상계』라는 잡지가 준 영향이 매우 컸다고 봐요. 민주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국론을 결정할 수 있는 청소년을 민주적 지식인으로 교육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익: 『사상계』와 <동아일보> 두 개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군중을 선도하고 힘을 실어주는 데에는 두 개가 아주 압도적이었죠/ 임헌영: 그런데 자유당 때 언론은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도 박정희 때처럼 무슨 조치가 있거나 언론탄압은 드물었어요. 그때는 언론들이 정간된 이유가 대개 활자기술의 문제, 괴뢰 자를 잘못 넣었다든가 그런 코믹한 것이지 정부 비판은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김병익, 김승욱, 염무웅, 이성부, 임헌영, 최원식』,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2002, 26-27쪽.)

물론 ‘1950년대 지식인계의 담론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주로 ‘『사상계』지의 담론(정치사회적 담론, 문학 담론) 양상’이나 ‘『사상계』지 지식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¹⁵⁾이 많고 드

- 14) 물론 4.19를 한국의 항쟁사에서 있었던 ‘유일한 혁명’으로 위치 지으며 4.19를 ‘유일한 어떤 것’으로, 즉, ‘정초적(定礎的) 원형소(原形素)’같은 것으로 형상화하며, 4.19를 ‘민중 혁명’으로 5.16을 ‘4.19를 좌절시킨 권위주의적 반동’으로 규정 짓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반론들이 제기된 적이 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사문제연구소’의 특집(2011)과 권보드래의 논문을 들 수 있다. [특집:4.19에서 5.16으로 그 전환의 역사를 재해석한다],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이상록, 「특집에 대하여」,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후지이 다케시, 「4.19/5.16시기의 반공체제 재편과 그 논리」,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이정은, 「4.19에 대한 대자본가의 대응과 축적방식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권보드래,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필자는 이와 같은 반론들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 4.19를 이상화하지 않으며, 4.19를 이분법적 시각을 속으로 환원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1960년 4월에 있었던 대규모 시민 항쟁의 실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4.19혁명’이나 ‘4월혁명’을 사용하지 않으며 ‘4.19’라는 기표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4.19가 가진 복합적 성격과 중층성(예컨대, 4.19가 시민 항쟁적 성격만이 아니라 규율권력과 권위주의적 심성체계(소위 ‘망탈리테mentality’라고들 하는)를 공고화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는 중층성)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기 위함이다.
- 15)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이상록,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10.; 사상계 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김려실, 김경숙, 손남훈, 이시성, 『사상계, 냉전 근대 한국의 지식장』, 역락, 2020.; 고지혜, 「사상계 신인 문학상과 1960년대 소설의 형성」, 『우리문학연구』 49, 우리문학회, 2016; 정혜경, 「4·19의 장(場)과 사상계신인작가들의 소설」,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최애순, 「1950년대 사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57, 우리문학회, 2018; 김경숙, 「한국연극사에서 사상계의 위치연구—연극전문지 공백기(1950~1960년대)의 사상계 극문학 수록양상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9, 한국문학회, 2018.; 임지연, 「1960년대 사상계의 “세계” 이해와 세계문학 담론」,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2014; 윤상현,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동국사학』 57,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4; 한영현,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본 젠더인식」, 『한국민족문화』 5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박지영, 「냉전(冷戰) 지(知)의 균열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1950년대 후반~1960년대 전반 사상계 번역 담론을 통해 본 지식 장(場)의 변동」,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줄고, 「1950년대 사상계의 ‘중국’ 표상 및 담론 연구」, 『동방학지』 18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이 외에도 다수가 있다.** 최근에는 『사상계』에 대한 상술한 바와 같은 여러 편의 연구들이 모두 ‘글’과 ‘담론’ 중심의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상계』를 해당 매체에 실린 ‘화보’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흥미로운 연구도 제출된 바 있다.: 김려실,

물게 조봉암을 위시한 진보당계의 담론이 가진 당대적 의의에 대해 규명한 연구¹⁶⁾도 있다. 하지만 1950년대 담론장의 일각(一角)에 도산 안창호로부터 시작한 흥사단의 이념을 내세운 지식인 그룹이 자신들의 잡지(『새벽』)를 가지고 뚜렷하게 활동했었던 사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한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사상계』지 지식인 그룹’과는 (많은 담론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담론 정치를 전개한 ‘『새벽』지 지식인 그룹’의 담론 전개 양상을 논문을 통해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흥사단(興士團)’은 “1913년 5월 13일” “췌푸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처음으로 조직”¹⁷⁾해 지금도 서울 대학로에 본부가 있는 단체¹⁸⁾이다. 『새벽』지를 연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오랜 세월 한국 지성사, 담론사에 참여해 온 흥사단 계열의 이념이 ‘전후(戰後) 시기의 담론장에서는’ 어떠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한국 지성사의 미답(未踏)된 한 영역을 밝히는 의의 역시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 송년호는 발행 5일 만에 선풍적으로 매진되어서 본사로서도 오히려 당황하였으며, 책을 사지 못한 분들에게 여간 송구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호는 부수를 대폭 증쇄하여 우리나라 종합지계에서 최고부수를 확보하고 말았다. 그리고 창간기념호를 아직도 서점을 통하여 구하는 분이 많은데, 그 열의에 보답하기 위하여, 특히 본사 보관지 중에서 선착순으로 30명에 한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¹⁹⁾

(나) 안병훈: 그럼, 낙선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 김재순: 월간 『새벽』 발간에 전력했습니다. 걱정하고 이승만 독재와 맞섰습니다.(중략) / 김재순: 저는 4.19가 일어나기 전해 가을부터 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화보로 보는/읽는 『사상계』-1960년대 『사상계』와 혁명의 망탈리테』,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16)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하』, 역사비평사, 1999.

17) 김윤경, 「흥사단 창립 42주년의 기념사」, 『새벽』 1955.7. 110쪽.

1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동숭동 1-28)

19) 「편집기」, 『새벽』 1955.1. 4~5쪽.

4.19가 난 1960년에는 『새벽』이 장준하 씨의 『사상계』를 부수 면에서 수 차례 앞섰어요. 제가 주간으로 있으면서 자유당 독재정권을 높은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그것이 독자들에게 크게 어필했나 봅니다./ 안병훈: 압권은 1960년 4월호와 5월호입니다. 3.15 부정선거 일주일쯤 후에 발간된 4월호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피끄리는 운다」, 「민의를 피 흘리고」, 「혁명 전야」 등이 게재됩니다. 또 5월호는 4.19 직전인 4월 15일에 발간되었는데 「문화인의 지상(紙上) 데모」가 특집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특집에는 이태영, 조지훈, 김팔봉, 홍종인, 서상일, 이무영, 정비석, 주요섭, 부원혁, 선우휘, 김광림, 신동문, 차범석, 김수한, 윤석중, 김수영, 윤길중 등 무려 30인의 필자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 김재순: 그 시절, 의욕적으로 필자 섭외를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안병훈: 4.19의 기여 측면에선 『새벽』이 오히려 『사상계』를 앞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꽤 있습니다. (중략)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재순: 『새벽』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폐간을 각오한, 목숨을 건 편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장준하 씨가 “김 주간, 대단하시지만, 우리 『사상계』는 그렇게 까진 못해” 이래요./ 안병훈: 1960년 11월호에 실린 최인훈의 『광장』도 『새벽』이 발굴한 큰 성과입니다. 『광장』이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기념비적인 수준입니다.²⁰⁾

인용한 『새벽』 1955년 1월호 “편집기(編輯記)”와 『새벽』지 주간이었던 김재순의 회고를 통해 본다면, 1955년도 창간 초기(“종합지계에서 최고 부수”) 그리고 “4.19가 난 1960년에는” “수 차례” 『새벽』이 『사상계』보다 “부수 면”에서 앞섰던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수”라는 것은 단순한 양적 지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매체가 발간 시기 동안 담론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일차적인 지표라고 볼 수도 있다. 1950년대에 『사상계』가 가졌던 영향력이 “막강”²¹⁾한

20) 김재순, 안병훈, 『우암 김재순이 말하는 한국 근현대사-어느 노 정객과의 시간 여행』, 기파랑, 2016, 148~152쪽.

21) “임현영: 『사상계』를 많이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교직에 있을 때 저하고 몇 사람이 정기적으로 <타임>지라든가 『사상계』같은 것을 정기구독하면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사상계』의 영향력은 아주 막강합니다.”(「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것이었다고 할 때, 몇 차례이긴 하지만 『사상계』를 부수 면에서 앞섰던 적이 있는 종합지가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인 지표 이외에도 『새벽』지에 대해 『사상계』지의 장준하 사장이 “김 주간, 대단하시더만, 우리 『사상계』는 그렇게까진 못해”라고 말한 것이라거나 안병훈(1938년 생- 4.19 당시 22세, 기파랑 출판 대표)이 “4.19의 기여 측면에선 『새벽』이 오히려 『사상계』를 앞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꽤 있”다고 말한 것²²⁾을 미루어 보면, 『새벽』지가 1954년 6월부터 1960년 12월에 이르는 발간 기간 동안 해당 시기의 담론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매체임을 알게 한다. 이는 『새벽』이 가진 영향력이, 연구자들이 해당 지(誌)에 가져온 소략한 관심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게 한다. 필자는 상술한 정진석, 김건우의 언급과는 견해를 달리 해, 『새벽』이 『사상계』와 “쌍벽”을 이루는 잡지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사상계』지와 달리 『새벽』지에는 1958년도부터 그 다음해 여름까지 뚜렷한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사상계』 연구를 한 적이 있기에²³⁾ 『새벽』이 가졌던 영향력과 파급력이 당대의 『사상계』만큼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김옥동이 말하듯 『새벽』이 1950년대와 4.19정국, 제2공화국에 이르는 시기의 언론, 지식, 문학, 문화계의 맥락에서 『사상계』에 “버금가는”²⁴⁾ 정도의 종합지였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다시 생각한다-김병익, 김승옥, 염무웅, 이성부, 임현영, 최원식,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2002, 34쪽.)

- 22) 이에 대해서는 안병훈과 비슷한 연배인 염무웅(1941년생-4.19 당시 19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4.19혁명이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일단 매듭이 지어지자 신동문은 월간지 『새벽』의 편집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담한 기획과 파격적인 필자 등용으로 젊은 독자들에게 『사상계』 못지않은 호응을 받았다.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던 나 자신도 『새벽』의 참신성에 더 호감을 느꼈고, 최인훈의 『광장』처럼 600매가 넘는 장편을 한꺼번에 실는 데에 커다란 흥분조차 느꼈다.”(염무웅 엮음, 『염은이의 말』, 『신동문 전집』, 창비, 2020, 803쪽.)
- 23) 줄고, 「전후세대 소설의 두 양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17.(이 논문에서는 소설가 김성환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사상계』지에 대한 연구를 간접적으로 진행하였다. 김성환이 『사상계』지 주관이었기 때문이다.; 줄고, 「1950년대 『사상계』의 ‘중국’ 표상 및 담론 연구」, 동방학지 18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
- 24)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210-211쪽(E-BOOK 기준). 강조는 인용자. “2백자 원고지로 무려 600여장에 달하는 중편 작품 지면을 신

무리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준하(사장), 김성환(문학 파트 담당), 안병욱(교양 파트 담당), 김준엽, 신상초, 강봉식, 전택부(이상 편집위원) 등을 위시한 ‘『사상계』지 지식인 그룹’이 1950년대 지식계를 선도한 한 씨클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⁵⁾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요한(시인, 언론인, 『새벽』사장·발행인), 김주홍(『새벽』주간), 김용제(시인, 『새벽』편집장), 김재순(정치인, 『새벽』주간), 장리욱(교육학자, 서울대 총장 역임, 『새벽』1959년 10월호~1960년 9월호 기간 사장), 이용설(의사, 세브란스 병원장 역임, 『새벽』지 1960.11~12월 호 기간 사장), 신동문(시인, 『새벽』편집장, 『창작과 비평』발행인), 이어령(평론가, 『새벽』편집위원) 등을 위시한 ‘『새벽』지 편집진들’ 역시 1950년대의 한 유력한 지식인-언론 그룹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연구된 바가 없다.

주요한을 중심으로 한 『새벽』지 지식인 그룹의 정신적 기반은 도산 안창호와 안창호가 만든 홍사단이다. 『새벽』을 “홍사단 기관지”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이유이다.²⁶⁾ 『새벽』에는 따라서 홍사단원이었던 장리욱(해방 직후 홍사단 의사부장), 이용설(해방 직후 홍사단 이사부장), 조병욱(민주당 의원, 홍사단원), 김윤경(국어학자, 1954년 전후 홍사단 재건 시 의사부장)²⁷⁾ 등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였고, 도산 안창호의 생전 연설문, 편

출내기 문인에 지나지 않던 최인훈에게 선뜻 할애해준 것 자체가 이 무렵 출판 관행 으로서는 다소 의외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단에 갓 데뷔한 작가 초년생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 『새벽』은 과연 어떠한 잡지인가? 1954년 9월에 창간한 이 잡지는 주요한이 1920년대의 『동광』을 복간하여 새로 제호를 바꾸어낸 잡지이다. (중략) 창간사에서든 분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이 잡지는 도산 안창호의 ‘무실역행’ 정신을 이어받아 학술·문화·교양 등의 분야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창간 취지에 맞도록 이 잡지는 여러 분야에 걸쳐 무게 있는 글을 실었다. 1960년 12월에 7권 12호로 중단될 때까지 이 잡지는 『사상계』에 버금가는 종합 교양 잡지로서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새벽』은 이 무렵 활약하던 문인을 대거 동원하여 시 작법에서 우수 작품 소개에 이르기까지 문학성을 높이는 작업에 큰 무게를 두었다. 최인훈이 『광장』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잡지사의 과감한 편집 방침에 힘 입은 바 자못 큰 듯하다.”

25)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 책방, 2017, 4장, 5장 참조.

26) 이용호, 『주요한 연구』, 동광문화사, 2002, 34쪽.

27) 이용호, 『주요한 연구』, 위의 책, 43쪽.

지, 논설 및 도산 안창호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인물평 등 안창호 관련 글을 창간 초기 약 2년간(1954.9~1956.6) 매 호 게재하는 동시, 소위 도산 “안창호의 ‘오른팔’”²⁸⁾이었던 이광수²⁹⁾(『새벽』(1954.9)의 ‘편집 후기’에 이광수는 “동인(同人)”으로 호명된다.)의 남북 전 미발표 원고를 지속적으로 실는 편집 방침³⁰⁾을 보인다. 이는 『새벽』이 도산과 흥사단의 이념에 근간해 있음을 알게 하며 더불어 식민지 시기 흥사단 계열 잡지였던 『동광』지를 계승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주목하게 만든다.

(가) 1951년³¹⁾ 6월에 “동광” 복간호를 인쇄에 붙이고 사면으로 태워 버렸다. 이번에 “새벽”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 것도 역시 6월부터라 느껴진 바가 많았다. 첫째로는 그때의 동인이던 이광수, 백인제³²⁾ 양(兩) 씨가 남북 되어서 아직도 소식이 묘연하므로 남은 동인들은 더 한층 동지애의 눈물을 머금었다.³³⁾

(나) “동광”이 “새벽”으로 개제하게 된 것은 실상인즉 행정상의 적은 절차에 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도 한 개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의 “동광” 제호는 지금 남북되신 김려식 박사의 작(作)이었다. 그것은 불교적인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동편 하늘의 빛” 즉 새벽빛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새벽”은 문자 그대로 차일의 “동광”이다. 그러나 동광이라는 차용문자로서 표현되었던 이름이 새벽이라는 순전한 우리 고유의 말로서 고쳐진 것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비약이요 진전일 것이다. 새벽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뜻하는 것인 것처럼

28)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 책방, 2017, 15쪽.

29) “서울 도산회관 흥사단 본부단적 입단 번호 103번 이광수 104번 주요한 (중략) 144번 주요섭”(주요한의 동생-인용자)(이용호, 위의 책, 21쪽에서 재인용.)

30) 이광수, 「미발표 시편」, 『새벽』 1954.9.; 이광수, 「미발표 작품 연재 (제1회):운명」, 『새벽』 1954.12.; 이광수, 「미발표작품:운명:연재(제2회)」, 『새벽』 1955.1.; 이광수, 「미발표작품 운명:연재(제3회)」, 『새벽』 1955.3.; 이광수, 「연재:운명 (제4회)」, 『새벽』 1955.5. 이광수, 「춘원 미발표 소품 : 사랑」, 『새벽』 1955.7.

31) ‘1950년’의 오식.

32) 백병원 설립자.

33) 「편집기」, 『새벽』 1954.9. 6~7쪽.

럼 “새벽”의 정신은 항상 전진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³⁴⁾

『새벽』(1954.6~1960.12)은 홍사단 계열 잡지였던 『동광』(1926.5~1933.1)의 후신임을 자처한다. 인용문에 따르면 원래 『새벽』은 6.25전쟁이 아니었으면(“사변”) 1950년 6월에 『동광』이라는 제호로 복간, 간행되었을 것인데, “사변” 때문에 “복간호”가 불에 타버려, 1954년 6월에 창간호를 내게 된 잡지이다. 『새벽』으로 개제한 이유는 ““공보부에 잡지 명칭을 『동광』으로 신청”했으나, 명칭의 발행권 취소로 재차 등록이 어”³⁵⁾럽다고 해서이다. 상술한 인용에서 주요한이 “행정 상의 작은 절차”라고 말한 것은 이 ‘발행권 취소를 통보받은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주요한은 잡지의 제호를 “『동광』과 비슷한 순수한 우리말의 『새벽』으로 변경”³⁶⁾해 창간호를 낸다.

김효재는 『새벽』지가 가지는 식민지 시기 <동광>지와와의 연관성 그리고 『새벽』지의 정신적 기반이자 주된 이념적 지향점으로서의 안창호의 사상과 홍사단 정신을 조명하고, 『새벽』지에 나타난 농촌 부흥 담론과 “한글에 대한 자긍심”³⁷⁾을 강조하는 한글 문화 담론을 중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새벽』지의 주된 정신적 지향점들을 규명하였다. 『새벽』지가 기반하고 있는 ‘도산 정신과 홍사단 정신’ 그리고 ‘식민지 시기 <동광>지의 후신으로서의 성격’은 김효재의 선행연구가 언급하고 있듯이, 『새벽』지가 어떠한 매체였는지 그 매체이념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하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호의 연구³⁸⁾는 『새벽』지만을 대상으로 한 ‘매체 연구’는 아니지만, <세계전후문학전집>의 발간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어령과 신동문의 출판, 언론 활동을

34) 주요한, 「새벽중- 『동광』에서 “새벽”으로: 우리는 진보를 신봉한다.」, 『새벽』 1954.9. 216쪽.

35) 김효재, 위의 논문, 251쪽.

36) 홍사단사편찬위원회, 『홍사단 오십년사』, 대성문화사, 1964, 291쪽.(김효재, 위의 논문, 251쪽에서 재인용.)

37) 김효재, 위의 논문, 269쪽.

38) 이종호, 「1960년대 <세계전후문학전집>의 발간과 전위적 독서 주체의 기획」, 위의 논문.

면밀하게 검토하며 이어령과 신동문이 활동했던 “종합교양지 『새벽』”의 “전위적 독서 주체의 기획”³⁹⁾ 시도에 대해 논의했다. 두 연구는 『새벽』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약소한 현재 상황에서 필자에게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소중한 선행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새벽』지에 대한 보다 큰 볼륨의 상세한 ‘매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적 소론(小論)’으로⁴⁰⁾,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벽』지에 대한 가능한 논의 중 아직 수행되지 않은 ‘잡지가 처음 어떻게 어떤 인물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편집진과 편집 체제가 어떻게 수립되고 변화되어 나갔는가’라는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조사·연구하여 현재 학계의 『새벽』지에 대한 약소한 논의의 정도(程度)를 진전시킬 것이다. 그 진전은 『새벽』지의 ‘편집진들(생산 주체들)의 이력’, ‘편집진들의 『새벽』지와와의 관계’, ‘편집진을 구성했던 인물들 간의 공적(公的), 사적(私的) 관계’, ‘상세한 발간 배경(잡지를 발간하게 된 자세한 내막(內幕))’, ‘편집 체제의 특징’, ‘편집진과 편집 체제의 수립 및 변화과정’, ‘편집 주체들의 당대 맥락에서의 특성과 의의’를 상세히 조사·연구하는 것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2. 『새벽』의 편집 체제와 편집진 구성의 변화과정

『새벽』은 누가 만들었나? 『새벽』지 전체 호수의 인지(판권지)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모두 모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 김주홍, 김용제, 장리옥, 김재순, 이용설’. 주요한은 ‘사장’ 혹은 ‘편집 겸 발행인’으로 명기돼 있고 김주홍은 ‘주간’, 김용제는 ‘편집’, 장리옥은 ‘사장’, 김재순은 ‘주간’, 이용설은 ‘사장’으로 적혀 있다. 이 외에 ‘2기 혁신호 체제’부터 이어령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고⁴¹⁾ 신동문 역시 1960년 5월호부터

39) 이종호, 위의 논문, 87~92쪽.

40) 본고는 『새벽』의 매체 이념에 대한 보다 큰 볼륨의 연구(‘연구 저서’ 혹은 ‘학위 논문’)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적 소론(小論)’ 혹은 ‘시론적(試論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장을 맡았던 사실이 있다.⁴²⁾ 하지만 신동문은 1960년 5월호부터 중간호인 1960년 12월호까지 인지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새벽』의 발간은 크게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은 필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새벽』이 창간 후 3년 반가량 창간 초기의 불륜과 기세를 이어 나가다가, 중간에 침체기를 겪고, 다시 1959년 10월호부터 ‘혁신호’라는 제호를 달고 매수를 대폭 증대해서 새 출발을 하기 때문이다.⁴³⁾ 『새벽』의 편집진 역시 이러한 결절점과 새 출발 지점을 표나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도 하다. 1959년 10월 혁신호(220쪽)는 침체기인 직전의 1959년 6월호(36쪽)보다 매수 면에서 6배가량 증가했는데, 1959년 10월 혁신호 이후는 중간 때까지 계속 이 정도 불륜을 유지한다. 『새벽』 1기는 ‘사장 주요한, 주간 김주홍, 편집 김용제’ 체제였고, 2기는 1958년 1월호부터 ‘김주홍’과 ‘김용제’의 이름이 인지에서 사라지고 1958년 4월 김재순이 주간으로 표기되기 시작하면서 준비되다가 1959년 10월 혁신호부터 장리욱이 사장을 맡게 되면서 ‘사장 장리욱, 주간 김재순, 발행인 주요한’의 체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간도 편집장 표기도 없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주요한”의 이름만 찍힌 1958년 1월호부터 ‘발행인 주요한’과 ‘주간 김재순’ 두 명에서 편집을 맡은 1958년 4월, 1958년 8월, 1958년 11월, 1959년 3월, 1959년 6월 호까지는 ‘2기’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이자 침체기로 보인다.

『새벽』의 편집진들의 각각의 이력과 그들이 『새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리고 편집진들 간의 공적(公的), 사적(私的) 관계는 어떠한했는지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새벽』의 ‘편집 체제와 편집진 구성의 변화과정’을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1) 이종호, 위의 논문, 85쪽.

42) 김관수, 『신동문 평전』, 북스코프, 2011, 95쪽.

43) 오무라 마스오 역시 김용제 편집장 시절의 『새벽』을 “제1기 『새벽』”으로, 장리욱 귀국 후의 1959년 10월 혁신호부터를 “제2기 『새벽』”이라 말하는데(오무라 마스오, 심원섭 역, 『사랑하는 대륙이여-시인 김용제 연구』, 소명출판, 2016, 183쪽.)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한다.

〈표 1〉

호수	사장, 발행인 역(役)	주간	편집	편집 체제의 주요 변화 및 비고
1954.6	주요한(표기-“편집 겸 발행인”)	×	×	“창간호”
1954.9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창간기념호”
1954.12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1955.1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1955.3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1955.5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1955.7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1955.9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5.11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6.1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6.3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6.5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6.7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6.9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6.11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7.1	주요한(표기-“사장, 편집 겸 발행인”)	김주홍	김용제	
1957.2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1957.3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1957.4	주요한(표기-“사장”)	김주홍	김용제	
1957.5				인지 없음
1957.6				인지 없음
1957.10				인지 없음
1958.1	주요한(표기-“편집 겸 발행인”)	x	x	
1958.4	주요한(표기-“발행인 겸 사장”)	김재순	x	
1958.8	주요한(표기-“발행인 겸 사장”)	김재순	x	
1958.11				인지 없음 ※세로쓰기로 바뀜
1959.3	주요한(표기-“발행, 편집, 인쇄인”)	김재순	x	
1959.6	주요한(표기-“발행, 편집, 인쇄인”)	김재순	x	
1959.10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혁신호 시작 ※이어령 편집위원 영입
1959.11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1959.12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1960.1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1960.2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1960.3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1960.4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1960.5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 신동문 편집장 영입
1960.6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신동문 편집장

1960.7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신동문 편집장
1960.8				인지:내용 누락
1960.9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신동문 편집장
1960.10	장리욱(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신동문 편집장
1960.11	이용설(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신동문 편집장 ※『광장』 초판
1960.12	이용설(표기-“사장”)	김재순	주요한(표기-“편집, 발행 겸 인쇄인”)	신동문 편집장

상기한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새벽』은 크게 ‘김주홍 주간’과 ‘김용제 편집장’이 있던 초기(1954.6~1957.10)와 김주홍과 김용제가 나가고 김재순 주간이 새로 들어오긴 했으나 재정 상황이 안 좋아 매수가 크게 줄어든 침체기(1958.1~1959.6)를 포함한 1기, 그리고 혁신호 발간(1959.10)을 계기로 시작된 2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기의 특징은 장리욱 사장과 김재순 주간의 고군분투로 매수와 내용의 품질이 모두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과 이어령 편집위원이 영입되어 문학란이 활성화되었으며 신동문 시인 역시 4.19 직후 편집장으로 영입되어 문학란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최인훈의 ‘『광장』 초판’을 발굴, 게재했다는 점이다.

3. 『새벽』의 발간 배경, 편집 특징과 잡지 체제의 변화과정 및 편집진들의 면모(성격)

이제 전기적, 회고적 기록들을 비롯한 『새벽』지에 대한 언급이 나온 여러 종류의 텍스트들을 토대로, 『새벽』의 발간 배경, 편집 특징과 잡지

체제의 변화과정 및 편집진들의 면모(성격)를 자세히 재구성해 보겠다.

3.1. 발간 배경

『새벽』에 관계한 사람은 여럿이나 창간부터 중간까지 계속 관여한 사람은 주요한 한 사람이다. 주요한은 『새벽』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최초의 인물이다.

(부산 피난 시절에 인용자) 「국제문제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다. (중략) **김재순**, 김용성, 김경옥 등 삼김이 연구원으로 일을 보아 주었고 송원영 군도 가끔 들렀다. (중략) 당시 부산에는 국제신보와 부산일보가 있었고 서울에 있던 일간 신문들도 부산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을 발간했었는데 사실 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동아> <경향> <국제> <부산> 네 개 신문의 논설 제공자가 되어 주로 공산주의 비판 사실을 실렸다. ‘사설 공급 통신사’라는 것은 세계 신문 역사상 처음이요, 마지막일 것이다. (중략) 휴전협정이 3년간이나 끌어서 체결되고 1954년 우리 가족은 서울로 복귀했다. 사직동나의 집은 한때 중공군이 점거했다 하는데 겨울이라 집 안에 있는 물건은 죄다 태워 버렸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오랫동안 시작의 자료로 적어 두었던 노트와 과거의 작품을 전부 수집해서 시 전집을 만들려던 원고까지 태워 없앴 것이었다. 그것이 그 후 시를 못 쓰게 된 심리적 원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국제문제연구소」의 간판을 그대로 걸고 한편 <동아>, <경향> 두 신문사의 사설을 쓰면서 『새벽』잡지를 창간했다.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므로 자연히 내가 쓰는 글이 야당적 색채를 띠게 된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홍사단은 민주국민당과 함께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웬일인지 이범석 씨의 민족청년단과 아울러 경찰의 탄압 대상이 되었다. 소위 야당계열을 통합하여 민주당을 만들 때 모임 장소가 없어서 홍사단 본부의 조그만 강당을 빌어 창당대회를 열었다.44)

『새벽』은 주요한이 “「국제문제연구소」의 간판을 그대로 걸고 한편

44) 주요한, 『주요한 문집-새벽 I』, 요한기념사업회, 1982, 80~82쪽. 강조는 인용자.

<동아>, <경향> 두 신문사의 사설을 쓰면서” “창간”한 잡지이다. “『국제문제연구소』”는 훗날 『새벽』의 주간이 되는 김재순이 참여한 일종의 “사설 공급 통신사”였는데, 이 연구소는 『새벽』의 창간에 큰 역할을 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한은 자신의 “시 전집을 만들려던 원고”가 전란으로 불타버린 걸 알고 나서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는 심리가 되어 버리고, 이때부터 각종 신문에 ‘사설’을 열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잡지 창간자가 되어 ‘언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상기한 인용문에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명기된 ‘김재순’과의 관계도 주목된다. 이 시기 즉 주요한이 ‘국제문제연구소의 간판을 걸고 『새벽』을 창간했던 시점’에 대해 김재순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김재순: 주요한 선생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지금 부산에 피난 온 신문사에 사설을 쓸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써달라고 하니 자네가 좀 도와주게” 이러세요. 주요한 선생을 가까이서 모시게 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사무실은 옛 부산시청 앞쪽에 있었습니다. 사임하는 친구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얻어 놓고 주요한 선생이 신조사를 열었어요./ 안병훈: 의장님의 인생에 있어 또 한 분의 큰 스승을 만나는 순간이네요./ 김재순: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주요한 선생은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보>, <부산일보> 같은 일간지에 일주일에 두 꼭지씩 사설을 쓰셨습니다. 저는 주선생이 사설의 방향을 잡는데 말뼉 정도였지요. 서울에 올라올 무렵에는 신조사가 국제문제연구소로 개편됩니다.(중략)/ 안병훈: 서울에서 집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김재순: 처음엔 회현동에 집을 구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암동 장인 댁에서도 얼마간 지냈습니다./ 안병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김재순: 주로 주요한 선생과 국제문제연구소 일을 계속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총무 직함을 갖고 있었어요. 주 선생은 <동아>와 <경향>에 주로 쓰셨고 저도 직접 사설이나 논설을 쓰기도 했습니다.(중략)/ 안병훈: 국제문제연구소 일은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김재순: 1956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1955년 8월에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국제문제연구소 일을 봤으니까요./ 안병훈: 그렇다면 1955년 8월을 정치인으로서 공식 첫걸음을 내디딘 시기로 봐도 되겠네요./ 김재순: 네. 그때를 저의 정계 입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제3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한 주요한 후보 선거 사무장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안병훈: 제3대 민의원 선거(1954.5.20-인용자) 서울 제3선거구(종로)에는 무려 13명이 입후보했습니다. 주요 후보자는 윤보선, 장후영, 박순천, 주요한 등으로, 그 당시 선거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 김재순: 그때가 환도 직후여서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구호를 ‘이때가 어떤 때냐, 주요한 때다. 주요한 선생을 국회로 보내자’고 만들었어요.⁴⁵⁾

한국전쟁 기 부산 피난 시절 주요한은 피난지 부산의 신문사들에 사설을 공급하는 “신조사”라는 일종의 ‘사설 공급 사무실’을 만들었고 김재순은 이 부산 “신조사” 시절부터 주요한과 함께 일하게 된다. “신조사”는 서울 환도 후 “국제문제연구소”로 “개편”된다. 이 “국제문제연구소”는 상기한 주요한의 회고대로 주요한이 만든 “사설 공급 통신사”이다. 김재순은 전시 피난지 부산 “신조사” 시절부터 주요한과 연을 맺어 1956년까지 “국제문제연구소”⁴⁶⁾ “총무”로 일하는 동시에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주요한 후보의 “선거 사무장”으로 일했다.(이 지역구에서 윤보선이 당선되고 주요한은 낙선했다.⁴⁷⁾) 이처럼 주요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김재순은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 직접 강원도 양구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후, 1958년 4월부터 『새벽』지의 주간으로 들어가 잡지 “발간에 전력”⁴⁸⁾하며 본격적으로 주요한과 새벽사의 편집진으로 함께 일하게 된다.

주요한이 임시로 차린 ‘『새벽』 편집실’⁴⁹⁾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5) 김재순, 안병훈, 『우암 김재순이 말하는 한국 근현대사-어느 노 정객과의 시간 여행』, 기파랑, 2016, 131~138쪽.

46) 『새벽』지 소재의 전체 글들의 필자 빈도수를 통계 처리한 결과, ‘국제문제연구소’의 필자명으로 나간 글은 내림차순으로 5순위이다. ‘국제문제연구소’는 김재순이 총무로 일했던 사설 연구소로 『새벽』지에 주요 국제 논설(해외 논설)들을 번역,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새벽사의 협연 사무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47) 주요한, 위의 책, 84쪽.

48) 김재순, 위의 책, 148쪽.

49) 이곳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1의 7”로 보인다. 『새벽』 1954년 6월 창간호의 인지에 잡지 “발행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1의 7”로 적혀 있기 때문

2가 199”⁵⁰⁾ 사무실’로 옮겨져 본격적인 창간기념호(1954.9)를 내게 된다. 이 ‘을지로 2가 199 사무실’은 1950년대에 유명했던 ‘대성빌딩’ 소재 사무실인데⁵¹⁾, 이 대성빌딩에는 1954년 6월 8일 “홍사단, 도산기념사업회, 대성문화사, 새벽사의 네 개 간판”⁵²⁾이 걸리게 되며 “새벽사”의 편집실이 위치하게 된다.(‘국제문제연구소’도 ‘대성빌딩’으로 이전한다.⁵³⁾) 대성빌딩에 자리 잡은 『새벽』은 ‘사장 주요한, 주간 김주홍, 편집 김용제’의 1기 편집진용을 꾸려 잡지를 발간해 나간다.

김주홍은 주요한, 김용제와 달리 회고류의 기록물이나 전기적 연구가 없지만, 『새벽』 편집장이었던 김용제를 연구한 오무라 마스오가 김주홍에 대해 언급해 놓은 부분을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다.

김주홍은 홍사단을 창립한 안창호가 입안한 ‘이상 농촌 건설’을 지방에서 실천한 면장이었다. 공개석상에서 고이소 총독에게 조선 민족의 민심을 얻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제도화할 것, “일체의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문자 그대로 ‘내선일체’를 제도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장한 젊은 인재였다.⁵⁴⁾

김주홍 주간은 안창호가 “입안한 이상 농촌”을 실제 현실에 실현해 보려 했던 활동가로 보이며, 1914년생으로 “경성법전”을 “졸업”한⁵⁵⁾ “젊은 인재”였다. 김주홍 역시 홍사단원이며 후에 제2공화국 장면 정부에서 서

이다.

50) 『새벽』 1954.9(창간기념호). 7쪽.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99”

51) 『홍사단 운동 칠십년사』, 홍사단 출판부, 1986, 333쪽.

52) 홍사단사 편찬위원회, 『홍사단 오십년사』, 대성문화사, 1964, 301쪽.

53) 다음의 ‘광고’를 보면 ‘국제문제연구소’도 대성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새벽』 1954.12. 120쪽: “이전(移轉) 안내(案內)/ 국제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99/ 전화 ㉠ 2291번”

54) 오무라 마스오, 심원섭 역, 『사랑하는 대륙이여-시인 김용제 연구』, 소명출판, 2016, 181쪽.

55) 『새벽』 지의 ‘필자 소개’를 보면 “평남 태생, 41세. 서울시 신당동 61의 44에 현재. 경성법전 졸업. 현 본사 주간”으로 나와 있다.(김주홍, 「지방자치와 민주정치」, 『새벽』 1955.3. 48쪽.)

울시 부시장으로 임명된다.⁵⁶⁾ 김주홍은 홍사단 활동을 하면서 같은 홍사단원이었던 주요한 사장과와의 인연으로 『새벽』의 주간 직책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해 볼 만한 인물은 김용제(1909년생) 편집장이다. 창간 초기(1954.9)부터 1957년도까지 편집장을 맡았던 김용제의 경우는 1954년 『새벽』지 편집을 맡기 전까지는 홍사단원이 아니었던 인물이다. 김용제는 시인으로 식민지 시기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 동맹에서 활동하던 프로문학가였으며 수차례 사상범으로 구금되었다가, 1938년 이후 ‘전향’하고 “일본 군국주의 시인의 호전사”⁵⁷⁾를 쓰는 시인이 되었다. 해방 후 김용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해 수감되었다. 김용제에 대한 오무라 마스오의 매우 정밀한 전기적 연구인 『사랑하는 대륙이여-시인 김용제 연구』를 보면 『새벽』지 편집진의 인적 구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 해방 직후의 친일파 단죄 문제는, 처음에는 많은 문인이 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점차 범위가 좁혀지면서 문단에서는 이광수, 주요한, 최재서, 김용제 4명으로 좁혀졌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8일,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한일병합으로부터 조선 해방에 이르는 35년간 자행된 친일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었다. (중략) 김용제는 자수하고 반민법에 의해 수감되었다. (중략) 김용제 옆에서 최재서가 취조를 받고 있었다. 김용제와 최재서는 수감 한 개에 오른손과 왼손을 차인 채로 같은 지프차로 호송되어 마포형무소에 도착했다. (중략) 최재서는 5일째에 석방되었고 김용제는 7일째에 석방되었다. (중략) 이때 이광수도 투옥되었는데, 그는 3개월간 옥고를 겪었다.⁵⁸⁾

(나) 국민보도연맹에서 1년 일했고, 1950년 4월에는 홍사단 기관지 <동

56) 홍사단사 편찬위원회, 『홍사단 오십년사』, 위의 책, 260쪽.

57) 오무라 마스오, 심원섭 역, 『사랑하는 대륙이여-시인 김용제 연구』, 소명출판, 2016, 132쪽.

58) 오무라 마스오, 위의 책, 179~181쪽.

광> 복간에 즈음하여 편집장에 취임한다. 주변은 모두 홍사단원이었고 김용제만이 비단원이었다. 이광수, 주요한, 장리옥, 김주홍 등과 다시 함께 ‘민족 부흥운동’의 오랜 전통에 빛나는 홍사단의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중략) <동광>의 복간 창간호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제본소에서 재가 되어버렸다. (중략) 김용제는 1950년 10월에 서울로 돌아와 미 제8군의 국군연락장교 이영순 대령이 조직 중인(남녀 대학생 중심) 문화 공작대에 불려가 고문으로 참여했다. (중략) 부산 시절에는 미군이 가족이 살 수 있는 대지 40평에 방 2개짜리 집을 마련해 줬고, 그는 미군 병사가 운전하는 지프차로 출퇴근을 했다. 1952년 봄 주요한을 통해 미8군 심리작전국 전속작가직에 응했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전쟁 정전으로 자연 퇴직을 맞은 그는 전란으로 잿더미가 된 복간 <동광>의 후신 『새벽』의 편집장으로 돌아왔다.⁵⁹⁾

인용문에 따르면, 많은 문인들이 반민특위의 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 심사 대상 문인은 이광수, 주요한, 최재서, 김용제 4인으로 좁혀졌다. 이 중 이광수, 주요한, 김용제는 한국전쟁으로 “재가 되어버”린 “<동광>의 복간 창간호”를 만든 잡지 동인(同人)이다. 이후 이광수는 납북되고, 주요한(1900년생)과 김용제(1909년생)는 각각 사장과 편집장으로 1954년 6월 <동광>의 후신으로 『새벽』을 창간한다. 김용제 편집장과 수갑을 한 쪽씩 나눠 차고 지프차에 호송되어 형무소에 들어갔던 최재서(1908년생)는 이후 『새벽』지 “연재 강좌”란에 “문학 원론”을 연재⁶⁰⁾하는 주요 필진이 된다.(『새벽』 전체 호수 필자 별 빈도수 6위⁶¹⁾) 이렇게 보면 『새벽』지

59) 오무라 마스오, 위의 책, 181~183쪽. 강조는 인용자.

60) 최재서, 「문학의 속성」, 『새벽』 1955.7.; 최재서, 「시적 체험」, 최재서, 「예술적 체험 - 문학원론-제3장」, 『새벽』 1955.9.; 최재서, 「시적 체험-문학원론 제4장」, 『새벽』 1955.11.; 최재서, 「표현과 전달」, 『새벽』 1956.1.; 최재서, 「상상(문학원론 6장)」, 『새벽』 1956.3.; 최재서, 「비극적 체험」, 『새벽』 1956.9.; 최재서, 「비극적 체험(문학원론 속)」, 『새벽』 1956.11.; 최재서, 「비극적 체험(3)」, 『새벽』 1957.1.; 최재서, 「연재강좌: 비극적 체험(완)」, 『새벽』 1957.2.

61) 『새벽』 전체 호수 필자 별 빈도수 순위: 1위: 주요한(35회), 2위: 장리옥(27회), 공동 3위: 도산 안창호, 김형식(13회), 공동 4위: 박동운, 신상초(12회), 5위: 국제문제연구회(11회), 공동 6위: 최재서, 김성식, 김용제, 김팔봉(10회), 공동 7위: 김윤경, 선우휘, 전영택(9회), 공동 8위: 백철, 이관구, 이동화, 최남선(8회), 공동 9위: 이광수, 이어령,

의 주요 인적 구성원은 ‘반민특위의 심사 대상 문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주요한은 3.1운동 직후 도쿄 유학 생활을 접고 “밀항”해서 상하이로 이동한 후 “<독립>이라는 임시정부 기관지의 편집을 맡게 되었”을 때 “야구 친선경기” “구경”을 갔다가 “처음으로 춘원 이광수 선생을 지면”했다고 말한다.⁶²⁾ 이후 주요한과 이광수는 긴밀한 관계가 된다. 김용제는 일제 말기에 전향하기 전까지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 동맹에서 활동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이광수, 주요한, 장리옥 등 홍사단 계열 인사들과는 크게 친분이 없었다. 하지만 김용제는 일제 말기 소위 친일시를 썼던 게 문제가 돼 해방 후 반민특위 심사 대상이 되면서 비슷한 처지의 주요한, 이광수 등 홍사단 계열 인사들과 안면이 트이게 되어 그들과 함께 50년 4월 <동광> 복간호 제작, “1952년 봄 주요한을 통해 미8군 심리작전국 전속작가”로 일하다가, 한국전쟁 정전 후 1954년 “홍사단 이사에 취임”⁶³⁾, 『새벽』지 편집장⁶⁴⁾까지 맡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용제는 『새벽』의 창간기념호부터 1957년까지 편집장으로 일한다.<표 1>

3.2. 1기 편집 체제의 수립·전개 과정과 편집 특징

‘사장 주요한, 주간 김주홍, 편집 김용제’의 1기 편집진이 활동할 때의 『새벽』지의 편집체제의 수립·전개 과정과 편집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새벽』지는 당시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가로쓰기’를 도입했다.

‘가로쓰기’가 직각성이 없고 읽기에 불편하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옵니다. 이 점 편집자도 자인합니다만, 문화 상으로 발전한 사실이라 믿기에 ‘가로쓰기’, ‘가로 편집’은 영원히 계속하렵니다.⁶⁴⁾

한근조(7회), 공동 10위: 조연현, 지명관, 함석헌(6회).

62) 주요한. 『주요한 문집-새벽 I』, 위의 책, 27~28쪽.

63) 오무라 마스오, 위의 책, 183쪽.

64) 「편집기(編輯記)」, 『새벽』 1954.12.

『새벽』은 ‘가로쓰기’가 불편하더라도 “문화 상으로 발전한 사실이라 믿기에” ‘가로쓰기’를 고집했다. 아마도 1950년대의 이념형인 아메리카 니즘과 영어의 영향으로 ‘가로쓰기’가 “문화 상으로 발전한 사실이라 믿”고 ‘가로쓰기 편집 방침’을 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로쓰기 편집’은 1958년 11월호부터 ‘세로쓰기 편집’으로 바뀐다. ‘세로쓰기’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새벽』의 ‘창간사’와 ‘강령’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새벽』을 월간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소책자의 모습으로 시작하였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새벽에 큰소리는 금물이다. 따라서 어둠 속에서 새로운 날이 열려 오듯이 맑고 깨끗한 새벽의 광명과 희망을 향하여 착실한 전진을 기할 따름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와 고결한 교양을 위하여 짙은 내용과 조촐한 형식으로 장래의 발전을 자부하고 있다. 머지않아서 권위지의 하나가 될 것이다.⁶⁵⁾

(나)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동광” 잡지는 일제압정하에서 민족 문화의 보전과 양양을 위하여 고전분투하였습니다. “새벽”이란 제호는 “동광”의 우리말입니다.

1. 자유와 민주주의 역량을 풀뿌리에서부터 쌓아 올리자
2. 무실역행의 정신으로 민족의 품격을 도야향상하자
3. 동방의 전통 위에 세계 사조를 흡수하여 우리의 신문화를 창조하자
4. 사랑과 총명과 용기로써 진정한 하나의 세계를 성취하자

이상과 같은 기본 신조 하에서 월간 “새벽”은 매진합니다. 20세기 상반기 민족 자아 발견의 시기에서 하반기의 민족 자아 발전의 기간으로 넘어가는 이 때에 찬연한 “르네상스”의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날 필연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새벽”은 이 웅대한 “르네상스” 운동 전개에 선구자로서, 또는 한 개의 대원으로서 그 맡은 바 책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을 맹약하는 바입니다.⁶⁶⁾

65) 「창간사 대신으로」, 『새벽』 1954.6. 36쪽.

66) 『새벽』 1954.9. 5쪽.(속표지)

『새벽』의 창간호(1954.6)는 창간사에 나온 것처럼 36쪽짜리 소책자이다. 글도 최남선의 「진실정신」, 모운숙의 「영국의 민주주의」, 버어트랜드·러셀의 「대학의 기능」,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소탄과 원자회」가 전부이다. 하지만 창간호 다음 호(1954.9)는 216쪽으로 매수가 대폭 늘었다. “민주주의적 민족 문화”와 “교양”을 표방한다고 하는 점은 당시의 첨예한 관심사였던 ‘민주주의’에 대해 『새벽』 역시 착안하고 있음과 『새벽』이 종합 교양지로서 자임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이 별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싱거운 말처럼 보이지만 당대적 맥락에서 볼 때 ‘민주주의’란 대체로 ‘수입된 지 얼마 안 된’,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마 이식되어가기 시작하는’, ‘하지만 8.15와 더불어 너무나 급작스럽게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 수 없는’, ‘따라서 빨리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땅에 정착시켜야 할’ 제도이자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⁶⁷⁾, 『새벽』이 창간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적

67) 주요한, 「백 년 후의 한국 민족」, 『새벽』 1958.1. 16쪽. “민주주의를 수입한 지 10년에 정치계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를 뜯어고칠 수가 있겠는가?(중략)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여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다.”; 장준하, 「권두언: 참된 해방을 기대함」, 『사상계』 1955.8. 8쪽. “다행히 십년 전 8월 15일 우리는 전열의 피와 연합군의 승리 덕분에 해방을 맞이하여 자주 독립 민주주의 국가로 나설 기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감격적인 사실(史實)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중략)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족한지 7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전도는 갈수록 험악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주, 「피지배자의 지배: 벌어진 민주주의의 고민」, 『사상계』 1956.5. 31쪽. “새로이 민주정치의 형식만을 빌려온 나라”; 장준하, 「권두언: 민주주의의 재인식」, 『사상계』 1957.11. 16쪽. “우리가 민주주의의 정치이념과 생활방식과 세계관을 받아들인지도 어느덧 십여성이거니와, 작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현상과 사회적 사태의 한심하고 어지러운 꼴을 가만히 바라보고 통절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전도는 아직 요원하다하는 장탄식이다.”; 최복조,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반성」, 『새벽』 1958.1. 42쪽. “해방을 계기로 하여 우리들 대부분의 국민은 갑자기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병용, 「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사상계』 1958.6. 153쪽.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별로 알 길 없었던 우리 민족은 8.15해방을 계기로 급작히 쏟아져 나온 민주주의라는 구호에 그 의미조차 음미할 겨를도 없이 그저 누구나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유행어가 된 듯하다.”; 한태연, 「정치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사상계』 1959.6. 38쪽.

민족문화”를 지향한다고 진술한 것은 당대적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 (나)의 ‘『새벽』 강령’은 『새벽』지가 식민지 시기 『동광』지의 후신임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알리고자 하는 편집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홍사단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홍사단의 4대 이념은 ‘무실, 역행, 충의, 용감’⁶⁸⁾인데, ‘『새벽』 강령’에는 이것이 “무실역행”과 “용기”로 표현되었다. ‘충의’가 빠졌지만 그래도 『새벽』지가 ‘홍사단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려고 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동방의 전통 위에 세계 사조를 흡수하여 우리의 신문화를 창조하자”는 3항은 『새벽』의 정신적 기조가 ‘홍사단 이념’과 ‘『동광』’이라는 한국적 맥락에만 근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조”를 흡수하는 데에도 착안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는 한국전쟁 후 남한 내 아메리카니즘의 상승 기조에 맞추어 『새벽』도 ‘세계’, 정확히 말하면 ‘자유 진영’의 사조를 흡수하는 데에 “신문화 창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1950년대의 매체담개 『새벽』은 현재 20세기의 절반이 지났다는 것, 이제 20세기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세기 상반기”가 “민족 자아 발전의 시기”라면 “하반기”는 “민족 자아 발전의 기간”으로 “찬연한 “르네상스”의 운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새벽』 강령’은 『새벽』지가 스스로 이 르네상스 운동의 “선구자”가 될 것임을 “맹약”한다.

실제로 “창간기념호”(1954.9)의 권두 특집은 [한국의 르네상스를 위하여]이다. 이 특집에는 김기석의 「민족의 경력(經歷)과 의의 이념」, 전영택의 「종교부흥의 근본정신」, 백철의 「문학의 후진성과 부흥」, 고승제의

“대한민국의 건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로 결단된 우리 사회의 정치사는 불과 1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물론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이 10년의 역사는 너무나 짧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 10년의 역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10년의 역사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치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처음인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의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한 까닭에 이 10년의 역사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에서 적응성을 시련하게 되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진통기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68) 이광수, 『도산 안창호』, 대성문화사, 1953(초판 1947년), 174~175쪽.

「산업부흥의 구상」이 실려 있다. 각각 순서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리로 나아가자’⁶⁹⁾, ‘마틴 루터를 본받아 한국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자’⁷⁰⁾, ‘지금껏 한국문학은 모방기에 치중해 있었으니 이제 자기 것을 찾아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문학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때다’⁷¹⁾,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공론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⁷²⁾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새벽』지가 마련한 ‘첫 특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역사’, ‘종교’, ‘문학’, ‘산업’이라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식인 전문가 필자들을 섭외해 “르네상스” 방안을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새벽』지가 지식인 담론을 실어 나르는 종합 교양지를 표방하며 출발했음을 알게 한다. 이후 『새벽』은 [‘국난극복사’ 특집](1955.1), [‘민주사회의 발전책’ 특집](1955.3), [‘민족부흥과 교육문제’ 특집](1955.5),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특집](1955.7), [‘산업부흥을 위하여’ 특집](1955.9), [‘원자력의 세계’ 특집](1955.11), [‘대학생’ 특집](1956.1), [‘한국정당의 이론과 실제’ 특집](1956.3), [‘대통령, 부통령 선거’ 특집](1956.5), [‘한국 농업 문제’ 특집](1956.7), [‘문예’ 특집- 창작 4편, 시 8편](1956.9), [‘역사를 비약시키는 힘’ 특집](1957.3), [‘20세기의 민족 혁명’ 특집](1957.10)으로 이어지는 특집란들과 「과학정신과 민주사회」(장리욱)(1955.3), 「정치의 도의성」(장면)(1955.5), 「한국민주정치의 활로」(조병옥)(1955.7), 「뺏아 가야 할 나의 길」(장면)(1956.7), 「아메리카 정책에 이상 있겠나」(성인기)(1957.1), 「다시 개악하려는 헌법」(김동명)(1957.4), 「민주건설의 기초는 너다」(주요한)(1957.4),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주요한)(1957.5) 등의 주요 정치 논설들 그리고 [연재 ‘한국 현대 작가론’ : ①이광수(1957.3), ②김내성(1957.4) ③김동인(1957.5) ④염상섭(1957.6)], [최재서, ‘연재 강좌: 문학 원론’]⁷³⁾ 등의 연재 문학 논문들까지 실제로 “민주주의적 민족문화

69) 김기석, 「민족의 경력과 의의 이념」, 『새벽』 1954.9. 25쪽.

70) 전영택, 「종교부흥의 근본정신」, 『새벽』 1954.9. 33쪽.

71) 백철, 「문학의 후진성과 부흥」, 『새벽』 1954.9. 35~37쪽.

72) 고승제, 「산업부흥의 구상」, 『새벽』 1954.9. 39쪽.

73) 최재서, 「문학의 속성」, 『새벽』 1955.7.; 최재서, 「예술적체험 - 문학원론-제3장」, 『새

와 고결한 교양을 위하여 째짤한 내용’(「창간사 대신으로」, 『새벽』 1954.6. 36쪽.)을 보여준다.

3.3. 침체기 극복 후 2기 편집 체제의 수립·전개 과정과 편집 특징

‘편집 김용제’가 인지에서 안 보이게 되고 나서부터 ‘사장 장리욱, 주간 김재순, 발행인 주요한’ 편집진의 2기 혁신호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1958년도와 1959년 상반기는 『새벽』에 있어서 침체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자금난”으로 발간 호의 매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 편집 후기

이처럼져 가는 이 민족의 앞길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마련하겠다는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 애족의 정화 「도산 선생님」의 무실역행의 민족혼을 이어받은 『새벽』지가 본의 아닌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략) 『새벽』도 지금 무한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며 성과 없는 작업을 고의처럼 계속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 얼마 안 가서는 이 나라의 <에트란틱>으로서 행세할 날이 이 『새벽』에게는 도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요. 건실하고 풍부하고 이 민족 생명의 원동력이 되고 한국 지성의 선봉자의 임무를 담당할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⁷⁴⁾

(나) 독자 통신

오늘 9월 창간 제5주년을 마지하여 귀사와 폐지 “새벽”의 활발한 재기를 숙원하고저 합니다. “새벽”지가 이대로 꺼져버리기엔 이 땅의 체반 현실이 너무나도 가파롭습니다. 진정 오늘이야말로 이 민족은 건실한 민족 문화와

벽』 1955.9.; 최재서, 「시적 체험-문학원론 제4장」, 『새벽』 1955.11.; 최재서, 「표현과 전달」, 『새벽』 1956.1.; 최재서, 「상상(문학원론 6장)」, 『새벽』 1956.3.; 최재서, 「비극적 체험」, 『새벽』 1956.9.; 최재서, 「비극적 체험(문학원론 속)」, 『새벽』 1956.11.; 최재서, 「비극적 체험(3)」, 『새벽』 1957.1.; 최재서, 「연재강좌: 비극적 체험(완)」, 『새벽』 1957.2.

74) 「편집 후기」, 『새벽』 1958.4. 7쪽.

밑에서부터 움터 오는 지극히 새롭고 지극히 힘찬 새로운 세대의 욕구이며 한글 문화의 제일선에 자리한 “새벽”지의 사명을 묻는 동시에 폐지의 힘찬 새 출발을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보살피 새로운 계기와 각오가 있어 주기 사장을 위시해서 여러 사원선생님께 재삼 재삼 부탁 말씀 여쭙는 바입니다. - 목포 정일진⁷⁵⁾

(다) 편집실에서

서신으로 격려해주신 여주의 김건호 선생 목포의 정일진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제언 있기를 바랍니다.⁷⁶⁾

(라) 독자 여러분께

『새벽』을 아껴주시는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은 원체 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렇게 초라한 책을 거듭 내게 되니 정녕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이 ‘겨레의 새벽’을 창조하기 전에, 즉, 새벽이 닥쳐오기 전에 『새벽』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⁷⁷⁾

인용문들은 『새벽』이 일시적으로 “자금난”과 ‘침체기’에 빠져 있음을 알게 한다. 하지만 『새벽』 편집진은 “『새벽』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힘을 모아 얼마 안 가서는 이 나라의 <애트란틱>으로서 행세할 날”이 올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 다짐은 실현된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12월 도쿄로 가서 미국 국무성이 의뢰한 북한군 자료 번역 일을 하고, 재일 UN군 총사령부 방 송국 일을 하며 일본에 체류하던 장리욱이 “1958년 가을 서울에 돌아”온 것이다.⁷⁸⁾ 장리욱은 서울에 돌아와 『새벽』지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1959

75) 「독자 통신」, 『새벽』 1958.8. 77쪽.

76) 「편집실에서」, 『새벽』 1958.8. 77쪽.

77) 「독자 여러분께」, 『새벽』 1959.6. 36쪽.

78) 장리욱, 「제1부 나의 회고록」, 『백 년 전의 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196~211쪽.

년 10월 혁신호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제2기 『새벽』’을 출발시킨다.

내가 귀국한 1958년은 이승만 정권이 10년 장기 집권에 접어든 해이고 또 그 독재정치의 말기 증상이 형편없이 드러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중략) 나는 본시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과도 관련을 가진 바 없었지만 귀국 후 홍사단과의 깊은 관계는 다시 맺어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홍사단은 인격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수양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홍사단을 정치단체인 양, 그것도 야당적인 단체인 양 줄곧 오해를 해 왔다. 그래서 홍사단이 하는 사업이나 그 멤버들은 심한 감시와 극도의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1954년 9월에 홍사단이 창간했던 월간지 『새벽』의 경영이 순조로울 수가 없었다. (중략) 정권 연장에만 눈이 어두워진 집권자들은 직접 간접으로 사회에 부정부패를 부채질했고 민중으로 하여금 허위와 아부만이 사는 길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 버렸다. 뜻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상을 그냥 보고 앉아 있어야 옳으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건전한 국민정신을 일깨우고 나아가서 민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뜻에서 홍사단 간부들은 월간지 『새벽』을 속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시키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 『새벽』이 속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첫째는 재정 문제였고 다음은 『새벽』을 맡아서 꾸려나갈 인적 문제였다. 그 두 가지 문제를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벽』은 다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첫째 재정 면에서는 『새벽』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나 개인과도 가까이 지나고 있던 풍한산업의 김영구 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어 해결된 것이다. 그 때 것처럼 많은 돈을 홍사단 계통의 사업을 위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특히 실업인으로서의 커다란 모험이었다. 물론 극비 속에 이루어진 일이긴 했지만, 두 번째 인적 문제는 젊은 동지 김재순 군이 있어서 그냥 해결되었다. 일단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면 침식을 잊고 주야를 가리지 않으며 정열과 성의를 바치는 것이 김군의 성격이었다. 당시의 사회상과 특히 젊은 세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김군이었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가장 알맞은 인재였다. 그러니 나는 명목상 사장이란 지위에 있으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뒷

받침만 해주면 되었다. 『새벽』은 속간과 더불어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고 그들에게 감명을 안겨 주었다.⁷⁹⁾

장리옥은 『새벽』의 재정난을 “풍한 산업의 김영구 사장”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고, 잡지의 실무를 유능한 김재순 주간을 영입함으로써 해결하여 ‘제2기 『새벽』’의 혁신호 체제를 출발시켰다. 미국 흥사단에서 안창호와 함께 일했던 미국 유학과(컬럼비아 대학, 교육학 전공) 장리옥(1895년생)⁸⁰⁾은 당시(58년 귀국 시) 주요한과 더불어 흥사단계 지식인 그룹의 지도자 격 인물이었다. 김재순(1926년생)은 해방 후 “어렵게 어렵게 흥사단 사무소를 찾”아가서 “장리옥 선생과 통상문답을 하고 입단”하면서 장리옥을 ‘처음 만났고’⁸¹⁾ 서울대 상대 학생이던 시기에 인상 깊은 일화⁸²⁾를 통해 장리옥을 교수(서울대 사범대학장)로 만나 알게 되면서 “인생의 스승”⁸³⁾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이의 장리옥 사장과 김재순 주간은 1958년 5월 4대 민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잡지 편집 실무를 하기 힘들어진 주요한 발행인⁸⁴⁾을 대신

79) 장리옥, 위의 책, 212~214쪽.

80) 장리옥, 위의 책, 74~85쪽.

81) 김재순, 안병훈, 위의 책, 86~88쪽.

82) “김재순: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맹휴학을 주장하는 수백 명의 좌익 학생 집회에 장리옥 사대 학장이 뛰어들이었습니다. 그때 좌익 학생들의 구호는 ‘국대 안 반대’, ‘미국 신사 물러가라’, ‘식민주의 교육 반대’ 등이었습니다./ 안병훈: ‘미국 신사 물러가라’는 무슨 뜻인가요? 미국인 총장 물러가라는 뜻인가요?/ 김재순: 맞습니다. 장리옥 학장이 단상에 올라가서는 양복 상의를 먼저 벗어요. 그러고는 넥타이를 풀고 바지를 벗는 겁니다./ 안병훈: 바지를 벗었던 말입니까?/ 김재순: 네, 바지를 벗더니 장리옥 학장이 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드시피 이제 양복을 다 벗어버렸소. 이런 미국 신사는 처음 볼 것이오...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다 그토록 사랑했던 학교에서 쫓겨나 옥고까지 치른 나요. 그런데 어찌 내가 식민지 교육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한단 말이오!~/ 안병훈: 큰 감명을 받으셨겠습니까./ 김재순: 어부가 있었습니까. 좌익 학생들은 점차 흩어졌고 장 박사는 내의 차림으로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학생 시위에 뛰어들어 설득하는 학장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중략) 장리옥 박사는 안창호 선생에 감화돼 흥사단에 입단한 분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귀국해 평안북도 선천의 신성학교 교장이 되셨는데, 그 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됐다가 1년 이상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김재순, 안병훈, 위의 책, 93~95쪽.)

83) 김재순, 안병훈, 위의 책, 88쪽.

해 실무를 맡는 동시 주요한 발행인과 협의해가며 ‘제2기 『새벽』’ 혁신호 체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다.

평론, 교양, 학술, 문화 종합잡지로서 『새벽』의 지령(誌齡)은 이미 6개 성상(星霜)을 경과하였다.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동광> 때부터 따지자면 해방 전 일제 압정 하의 민족 문화 보전 및 양양을 위한 고전분투 시절까지 회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10월호부터 우리는 「혁신 제1호」를 내어놓는다는 포부를 가지고, 편집의 「스케줄」을 넓혀 각계의 광범한 독자 체현들과 더불어 시대적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전통과 경장(更張)을 함께 구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암흑이 지터갈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는 법이다. 그러나 여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암흑과의 투쟁이 더욱 과감해야 한다. 형극의 길을 밟아 새벽이 이제야 트이는 듯한 이때 혁신호도 결의를 다짐하고 민중이라는 대지에 발을 짚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 숨가쁜 현실 속에서 독자의 호흡을 대신할 수 있고 현실을 직관, 분석하여 삶에의 길을 예비하는 큰 몫을 다할까 의문이나 열과 성을 다할 때, 오랜 세기의 검은 구름이 거처게 할 수 있는 민중의 눈과 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략) 사실이지 새벽 혁신호를 준비하느라고 바다도 한번 못 가보고 올 여름은 넘긴 셈이다. 그래서 푸르름이 더 정다워지는지도 모를 일이다.⁸⁵⁾

『새벽』 1959년 10월 혁신호의 편집진은 『새벽』이 가진 지령(誌齡)이 짧지 않은 점과 『새벽』이 『동광』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혁신호를 내어놓는 포부를 밝힘과 동시에 “암흑과의 투쟁”을 “더욱 과감”히 할 것을 선언한다. 1959년 10월 혁신호는 침체기의 직전 호보다 매수에서 6배가량 증가했으며, 권두의 ‘정권교체는 가능한가 특집’⁸⁶⁾에서 직설적으로 “자유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고정훈)고

84) 주요한, 위의 책, 85쪽.

85) 「편집 후기」, 『새벽』 1959.10. 220쪽.

86) [특집: 정권교체는 가능한가], 『새벽』 1959.10. - 이종극, 「정권교체의 자유는 폭력혁명의 안전판-폭력혁명이 처벌되어야 함과 똑같은 이유로 권력 남용을 통한 정권교체 자유 침해도 처벌되어야 할 일이건만 그렇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주요한, 「후진

말함으로써 『새벽』 제2기 혁신호 체제의 시작을 강경하게 선언한다. 더불어 이러한 혁신호 체제의 강경한 노선의 편집 방침은 실제로 “10월 혁신호를 내놓자 발매 오일만에 매진되어 전국 각 서점과 독자로부터 쇄도하는 요청으로 월간계에 일찌기 없었던 재판을 간행하였든 바 재판마지 완전 매진을 보게”⁸⁷⁾ 만들었다. 이는 『새벽』지가 침체기를 벗어나 부활하였음을 알게 하는 동시에 『새벽』지가 당대의 지배 권력과 강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강경한 대립 노선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4.19 정국’까지 이어진다.

1959년 10월 『새벽』은 ‘혁신호’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글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다음 달인 11월호는 “나의 붓을 꺾을 자 누구냐, 정간 중인 경향신문 주필의 항변”(이관구), “경향신문 사건의 판결 비판”(이항녕), “언론자유는 쟁취해야 하는 것”(홍종인) 등의 글로 자유당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4.19혁명은 언론, 야당, 학생, 국민 저항의 공동전선이 형성되어 성공을 이끌었다. 그 혁명의 논리는 『새벽』, 『사상계』와 같은 잡지가 제공했다. 『새벽』은 5월호(1960년 5월호-인용자) 거의 전체를 학생 혁명과 관련된 글을 싣고 특집으로 ‘문화인의 항변’을 마련하여 30여 명의 문인, 학자, 언론인이 학생 혁명의 의미를 점검했다. 6월호는 “새벽은 이겼다”라는 독자의 말을 인용하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감개무량함을 전했다. 같은 호 특집 <4.19 민권 혁명>에서 주요한은 “민권 혁명의 의의, 피로 산 자유는 시들지 않는다.”를 썼다.⁸⁸⁾

‘2기 『새벽』의 혁신호 체제’는 4.19 정국에 강경한 어조의 저항담론을

국의 정권교체-후진국이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순조롭지 못하냐?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진성이 극복되지 못하는가?’, 이동욱, 「민주당의 생리와 정권담당능력-‘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은 정권을 연장하려는 자유당의 은어가 아니면 좌익분자의 유언(流言)이다」, 고정훈, 「자유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자유당이 사는 길이다」, 송원영, 「내년 정부통령 선거의 전망-문제는 집권당의 부정선거 전략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

87) 「편집 후기」, 『새벽』 1959.11. 246쪽.

88) 정진석, 『한국 잡지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3~84쪽.

제공했고 이는 4.19라는 실제적 사건에 ‘담론, 언어, 텍스트’로서 『새벽』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게 한다. 1959년 10월부터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 담론의 수위를 강경하게 높인 ‘『새벽』 혁신포 체제’는 ‘4.19 정국’을 만나면서 본격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4월세대는 매우 행복한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회귀해서 참조할 중요한 영감의 원천을 세대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복하기는 한데, 세대의식이 매우 강해서 50년대를 격하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까 임현영 선생이 아주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1955년도부터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55년부터는 전후 부흥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물론 가난했지만 그 앞 시기와는 달리 뭔가 발흥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마띠에의 『프랑스혁명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혁명은 가난하고 지친 민중이 있는 나라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나라에서, 뭔가 국민의 기운이 상승하는 나라에서 터진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50년대 후반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습니다. 50년대 후반 문학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사회성이랄까요, 그런 것이 강하게 등장합니다. 염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새벽’이라는 잡지, 그 잡지를 보면 확실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50년대 후반 문학, 50년대 후반 사회와 60년대 4월혁명과의 연관점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최원식의 말-인용자)⁸⁹⁾

『새벽』 2기 편집진들이 50년대 후반 애써서 출발시킨 ‘혁신포 체제’는 후대의 학자가 보기에 “‘잡지’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새벽』 2기 편집진들의 노력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상술한 인용에서 최원식(1949년생)이 ‘『새벽』지를 자주 거론했다고 말한 “염선생님”은 염무웅((1941년생·4.19 당시 19세)인데, 염무웅이 『새벽』에 대해 자주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89)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김병익, 김승욱, 염무웅, 이성부, 임현영, 최원식」,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2002, 44-45쪽. 강조는 인용자.

것으로 보인다.

4.19혁명이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일단 매듭이 지어지자 신동문은 월간지 『새벽』의 편집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담한 기획과 파격적인 필자 등용으로 젊은 독자들에게 『사상계』 못지않은 호응을 받았다.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던 나 자신도 『새벽』의 참신성에 더 호감을 느꼈고, 최인훈의 『광장』처럼 600매가 넘는 장편을 한꺼번에 읽는 데에 커다란 흥분조차 느꼈다.⁹⁰⁾

『새벽』을 자주 거론하고 『사상계』보다 『새벽』에 더 호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염무웅은 “대학 신입생” 때 『새벽』의 애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새벽』의 혁신호 체제는 1959년 10월호부터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제2공화국 출범에 이르는 동안 원리적 자유민주주의의 견지에서 지배 권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장면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청사진⁹¹⁾을 제시하는 논조를 보였다.

3.4. 신동문과 이어령의 활약: 2기 혁신호 체제의 저항 주체 창출 기획

염무웅이 “대담한 기획과 파격적인 필자 등용으로” “젊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일을 했다고 평가한 신동문 편집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동문(1927년생)은 시인으로 『새벽』 편집장, 친구 문화사 주간·출판 기획자, 『창작과 비평』 발행인으로 일하다 1975년 필화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고초를 겪고 난 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충북 단양군 수양개 마을 농장으로 내려가 농장 노동과 독학으로 공부한 침술로 자기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침술을 병행하다 1993년 담도암으로 타계한 사람이다.⁹²⁾ 신동문 편집장이 『새벽』지에서 일했

90) 염무웅 엮음, 「염은이의 말」, 『신동문 전집』, 창비, 2020, 803쪽.

91) [특집: 제2공화국의 청사진], 『새벽』 1960.7.

던 일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신동문이 4.19혁명을 계기로 청주에서 서울로 와 처음으로 몸담은 직장
은 월간 교양지 『새벽』이었다. 그때가 1960년 5월로, 장면(張勉, 1899~1966)
정부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기 약 석 달 전이었다. 편집장을 맡게 되었는데,
발행인 주요한(朱耀翰, 1900~1979)과 주간 김재순(金在淳)은 그가 신춘문에
로 등단한 유망한 젊은 시인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그에 앞서 신동문은 군
에서 제대한 직후 청주에 머물면서 『현대문학』, 『사상계』 등 잡지에 시와
산문을 발표하곤 했는데, 그 작품의 우수성이 주요한과 김재순의 마음을 끌
었다. 그가 취직한 것은 인물의 참신함과 작품의 우수성 덕분이었으며, 요
즘으로 치면 스카우트된 셈이다. 훗날 신동문은 “혁명 와중에 서울에 오자
마자 김재순 선생을 만났으며 그 길로 바로 취직이 되었다”고 회고한 적 있
다. 당시 『새벽』은 『사상계』와 함께 대표적인 종합교양지로 흥사단 계열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진보적 성향의 잡지였다.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새벽』의 편집장이던 신동문에 의해서였다. 그는 1960년 9월 어느 날 최인
훈이라는 작가로부터 “광장”이라는 제목이 달린 2백자 원고지 6백여 장 분
량의 목격한 원고 문지를 건네받았다. 당시 최인훈은 무명에 가까운 신인
작가였다. 그 원고는 전쟁과 좌우이념대립이 남긴 후유증을 정면으로 다루
고 있었다. 그런 주제를 진지하게 다룬 소설은 분단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원고를 훑어본 그는 무릎을 탁 쳤다. 그것이 분단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
만한 작품이 될 것으로 직감하고, 11월호에 한꺼번에 다 신기로 마음먹었다.
게재 계획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가 편집 마감일 밤에서야 원고를 들고 인쇄
소로 갔다. 밤을 새워 이튿날 새벽 조판을 끝냈다.

「광장」은 그렇게 극적인 출생의 비밀을 가진 소설이었다. 그가 게재 계획
을 비밀에 부친 것은 자칫 그 계획이 밖으로 새어 나갈 경우 원고가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발행인에게도 또 동료 편집자들에게
도 그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비록 4.19혁명의 봄기운이 정국을 비추고 있
었지만 여전히 맹목적 반공으로 중무장한 반혁명 세력이 도처에 건재해 있

92) 김관수, 『신동문 평전』, 북스코프, 2011.

던 시절이었다. 더욱이 『새벽』은 문예전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 분량의 소설을 한꺼번에 전제한다는 것은 그에게 적잖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소설 『광장』은 5.16쿠데타가 일어나기 약 7개월 전에 혁명공간의 봄 기운을 잠시 빌려, 신동문의 안목과 재치와 용기에 의해 기습적으로 출판된 셈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광장』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공전의 히트를 쳤다.⁹³⁾

신동문은 발표한 시와 산문의 작품성으로 우선 주요한과 김재순의 마음을 끌어 새벽사에 “스카우트”되었다. 신동문이 『새벽』 편집장 시절 했던 일 중에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자신을 스카우트한 주요한과 김재순, 장리옥에게 말하지 않고 최인훈의 『광장』을 1960년 11월호에 전재(全載)해 버린 것이다. 상술한 인용문에는 신동문이 “발행인에게도 또 동료 편집자들에게도 그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으나, 호영송의 『이어령 평전』을 보면 신동문이 『광장』의 전재(全載)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 “이어령의 의견에 따라” “기대에 차서” “자극심을 가지고 게재”⁹⁴⁾ 했다고 나와 있는 것도 교차해서 참고한다면, 신동문 편집장은 이어령 편집위원과는 ‘『광장』의 전재(全載)’에 관해 의견 소통을 한 것으로 보인다.⁹⁵⁾ 어쨌든 신동문은 『광장』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에 대한 초조한 기대로 인쇄소에서 밤을 새웠고 우리가 아는 그 『광장』의 ‘초판’은 그렇게 신동문의 예민한 면려(勉勵)에 의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광장』은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어서 한반도를 떠나 버린 사람이 해

93) 김판수, 『신동문 평전』, 북스코프, 2011, 95~97쪽.

94) 호영송, 『창조의 아이콘, 이어령 평전』, 문학세계사, 2013, 91쪽.

95) 『새벽』 1960년 11월호에 실린 초판본 『광장』에 대한 김재순의 다음과 같은 회고 역시 ‘『광장』의 전재(全載)라는 문학사적 사건’이 새벽사의 전체 편집주체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어령 편집위원의 ‘의견’을 들은 신동문 편집장의 ‘결심’과 ‘주도’에 의해 발생한 사건임을 시사한다. “안병훈: 1960년 11월호에 실린 최인훈의 『광장』도 <새벽>이 발굴한 큰 성과입니다. 『광장』이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기념비적인 수준입니다. /김재순: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라 편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저를 이어 주간을 맡았던 신동문 씨가 받은 원고입니다. 경기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어령 씨도 <새벽>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모셔왔지요.”(김재순, 안병훈, 위의 책, 152쪽.)

상(海上)에서 자살하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정황상 신동문이 썼을 것이 확실한 『광장』의 작품 설명으로 보자면 『광장』은 “피와 살을 받은 조국인 남한도 북한도 거부하고 중립국을 택했던 석방포로가 향해 도중 남지나해 상에서 투신자살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인의 세기적인 고민을 묘사한 일대 역작”⁹⁶⁾이다. 아무리 4.19 직후이고 장면 정부 시절이라고 해도 냉전적 반공주의의 위세가 거세던 시절에 ‘북한과 남한이 싫은 대상으로 등치(等値)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김재순 주간이나 장리옥 사장, 주요한 발행인의 검토를 거쳤더라면, 잡지에 실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기우(杞憂)였다고 하더라도 신동문은 그렇게 판단했고 이어령 편집위원과의 의견교환만 거치고 새벽사의 다른 편집진이나 발행인과는 상의하지 않은 채 『광장』을 전채해 버렸다. 실제로 주요한은 부산 피난 시절 “공산주의 비판 사설”을 열성적으로 여러 통신사에 공급했던 사람이고⁹⁷⁾ 전란 중 중공군이 자신의 사직동 집에 있던 ‘시 전집 원고’를 불태워버린 것 때문에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는 심리상태가 되어 버렸던 경험(상처)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김재순은 장면 정부에서 외무부, 재무부 차관을 했던 것 때문에 5.16 후 가택연금(軟禁)을 당했지만, 63년 사적인 인맥으로 김종필과 연이 닿아 “김종필의 측근 참모”⁹⁸⁾가 된다. 이후 그는 박정희, 김종필에게 신임받으며 7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이다.⁹⁹⁾ 물론 5.16 이후의 행보를 통해 김재순 주간이 『새벽』 1960년 11월호 편집 기간에 『광장』 게재를 거절했을 것이라고 단언하긴 힘들다, 신동문의 과도해 보이는 걱정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신동문은 『새벽』 편집장 이후 신구문화사 편집·기획위원으로 <세계전후문학전집>을 기획해 독자들

96) 최인훈, 「광장」-작품 설명, 『새벽』 1960.11. 목차.

97) 주요한, 위의 책, 80쪽. “『국제문제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다. 목적은 공산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비판정신을 보급시키자는 것이었다. (중략) 당시 부산에는 국제신보와 부산일보가 있었고 서울에 있던 일간 신문들도 부산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을 발간했는데 사실 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동아> <경향> <국제> <부산> 네 개 신문의 논설 제공자가 되어 주로 공산주의 비판 사설을 실렸다.

98) 김재순, 안병훈, 위의 책, 192쪽.

99) 김재순, 안병훈, 위의 책, 388-391쪽.

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그는 여러 출판기획에 참여했는데 출판기획에 남다른 감각과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¹⁰⁰⁾

이어령은 상술한 신동문 편집장보다 반년 가량 먼저 ‘2기 『새벽』 혁신호 체제’의 편집에 참여했던 편집진 중의 일원이다. 물론 이어령은 “1959년 10월 혁신호부터 『새벽』의 비상근 편집위원으로 참여”¹⁰¹⁾했기에 『새벽』의 창립 멤버도 아니었고 상근 편집위원도 아니었으나, 김재순 주간이 “직접 전화를 걸어 모셔”¹⁰²⁾온 편집위원으로서, 신동문 편집장과 함께 ‘2기 『새벽』’의 문학란을 담당했다.

이어령과 신동문이 문학 관련 전공자로서 『새벽』의 편집을 이끌었으며, 이들이 추구했던 문화매개적 실천들이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벽』의 문예 지면의 구성과 배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호 발간 이래로 반이승만 정권의 색채를 현저히 드러내며 청년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촉구해온 『새벽』의 전반적인 논조와 문예지면이 서로 긴밀하게 호응하며 사회비판적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주체 구성의 당위성을 강하게 호소하는 까닭이다. (중략) 주목할 점은 이어령의 주도하에 세계적인 문제작이었던 마레크 흐라스코(Marek Hlasko)의 『제8요일』이 원고지 600매 전채로 『새벽』(1959년 11월호-인용자)에 수록됨으로써 문예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중략) 『새벽』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열렬한 것이었다. (중략) 문화 매개자 이어령과 신동문, 그리고 『새벽』의 편집진들이 던지는 비판은 저항적 청년주체의 출현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중략) 해외 청년 작가들의 ‘전위’ 문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새벽』은 젊은 지성과 문학정신으로 무장한 전위적 주체의 등장-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촉구했다.¹⁰³⁾

이어령은 ‘2기 『새벽』’ 문학란의 “저항적 독서 주체/저항적 청년 주체

100) 김관수, 위의 책, 95~167쪽.

101) 이종호, 위의 논문, 85쪽.

102) 김재순, 안병훈, 위의 책, 152쪽.

103) 이종호, 위의 논문, 88~92쪽.

의 출현을 자극하는” “편집 경향”¹⁰⁴⁾을 이끌어낸 편집위원이었다. 그가 “저항적 독서 주체/저항적 청년 주체”를 기획해내는 쪽으로 『새벽』지 문학란의 편집 방침을 강화해 나가는 시점은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폭정이 임계점을 넘어 한계치까지 도달해 가고 있던 1959년 말이었다. 이는 시의적절한 때에 이어령이 현실의 모순을 읽어내고 그 모순을 혁파할 ‘저항적 주체’의 출현을 ‘담론적으로 기획’한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새벽』의 ‘저항적 주체 형성 기획’은 4.19에 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새벽』의 기획이 4.19를 선두에 서서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독자통신란’의 ‘심상희’씨가 “<새벽>아! (중략)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밭(心田)을 푸르게 하고 신음하며 욕되던 삶에 저항하라고 울부짖고 외치던 네 소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새벽>아! 너는 이제 이겼다.”¹⁰⁵⁾라고 말하며 『새벽』의 ‘저항 주체 형성 기획’ (“신음하며 욕되던 삶에 저항하라고 울부짖고 외치던 네 소리”)을 4.19의 담론적 기반으로 호명("<새벽>아!")하는 것을 통해 4.19 직후의 감격을 전달해 오거나, 역시 ‘독자통신란’의 ‘정태식’씨가 “이어령 씨의 ‘사회참가의 문학’은 감명 깊게 읽었다. 자신의 존재의식이 새로워지는 충격 속에서 신념과 용기를 얻었다. 오늘까지 「돼지의 계산법」을 얼마나 사용했으며 「백조의 호반」을 얼마나 염원해 왔는지 자문자책을 불금한다. 4.19에 빛나는 <새벽>이 앞으로 더 한층 우리 젊은이들의 참다움과 보람있는 삶의 길을 현시하여 주기를 부탁한다.”¹⁰⁶⁾고 전달해 온 사실은 『새벽』의 담론적 기획이 독자 대중들에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새벽』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서 4.19 정국’에 이르는 기간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논설란과 문학란을 통해 ‘저항적 주체 형성의 담론 정치’를 전개해 나갔으며 이는 한국 항쟁사, 언론사, 문학사의 맥락

104) 이종호, 위의 논문, 92쪽.

105) 심상희(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243), 「새벽 벗으로부터 온 편지 이렇게 본다: 건설의 역군」, 『새벽』 1960.6. 297쪽.

106) 정태식(서울 중구 충무로 3가 30번지), 「새벽 벗으로부터 온 편지 이렇게 본다: 「사회참가의 문학」을 읽고」, 『새벽』 1960.6. 297쪽.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5. 4.19-제2공화국 시기 편집 주체들의 향방과 이후의 궤적

『새벽』은 4.19 이후 1960년 7.29총선으로 탄생한 장면 정부(제2공화국) 수립 후 조각(組閣) 시, 장리욱 사장이 주미 대사로, 김재순 주간이 외무부 차관으로, 주요한 발행인이 부흥부·상공부 장관으로 감으로써(1기 주간이었던 김주홍은 서울시 부시장으로 감) ‘사정이 매우 달라져’¹⁰⁷⁾ 버린다. 아마도 실무를 맡은 김재순 주간이 외무부로 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새벽』은 “장면(張勉)의 민주당 정권이 성립하고 발행인과 주간이 정계로 들어가면서 자진 폐간”¹⁰⁸⁾되게 된다.¹⁰⁹⁾ “신동문은 한동안 쉬던 끝에 경향신문 특집부장으로 입사”¹¹⁰⁾한다.

『새벽』지 편집진들이 『새벽』의 종간(1960.12) 후 어떠한 삶의 궤적을 그렸는지 간략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재순과 신동문의 『새벽』사 재직 시절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상술했으므로, 주요한, 장리욱, 김용제의 『새벽』사 재직 시절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107) 장리욱, 위의 책, 223~224쪽. 강조는 인용자. :“(1960년·인용자) 9월 어느 날 외무부 장관 정일형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반도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정 박사가 만나자고 한 용건은 장 총리가 나를 주미대사로 임명 하려고 하는데 수락 여부를 곧 알고자 함이었다. (중략) 그러나 한편 나에게는 생각해 봐야 할 사정도 있었다. 다름 아니라 『새벽』지 운영에 대한 책임 문제였는데 동 지들과 더불어 의논을 해야 했고 그들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주간이던 김재순 군이 이미 외무부 정무담당 차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새벽』의 사 정은 매우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중략) 결국 나는 미주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 (중략) 10월 22일 나는 임지를 향해 아내와 함께 김포공항을 떠났다. 때마침 제15차 U N총회에 한국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는 김재순 외무부 차관과 동행하였다.”

108) 염무웅, 「엮은이의 말」, 『신동문 전집』, 창비, 2020, 803쪽.

109) 같은 상황에 대해 정진석이 한 서술도 참고가 된다. “주요한은 1957년에 야당인 민주당에 입당하여 정책심의회 의장과 서울 중구 갑구 위원장을 맡아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제2공화국 시절에는 부흥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는 동안 더 이상 잡지 발행에 전념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1960년 12월 『새벽』은 종간호를 내고 잡지 발행을 중단했다.(정진석, 『한국 잡지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4쪽. 강조는 인용자.)

110) 염무웅, 「엮은이의 말」, 『신동문 전집』, 창비, 2020, 803쪽.

주요한은 4.19 직후 1960년 7.29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재선되고 장면 정부에서 부흥부·상공부 장관을 겸임하였다. 이에 따라 제2공화국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어 5.16 후에는 3년간 자택에 가택연금되었다.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당한 가택연금 시절 주요한은 『안도산 전서』를 집필하였다. 이후 연금이 해제되고 홍사단 활동이 다시 허용되기 시작한 64년도부터 홍사단 재건운동을 벌였으며, 이후 공기업 사장, 신문사 사장, 능률협회 회장 등 사회 각 처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하다 타계(1979년)했다.¹¹¹⁾

장리옥은 ‘2기 『새벽』’의 사장을 하면서 혁신호 체제를 잘 이끌었다. 『새벽』의 사장을 지내는 와중에 4.19를 경험하고 1960년 7.29 총선에 무소속으로 성동갑구에 출마해 낙선한다. 그 후 장면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된다. 주미대사로 부임 중 장리옥은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대사관 통신실”로부터 접하고 미국언론에 쿠데타를 반대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다.¹¹²⁾ 장리옥은 5.16 이후 주미 대사를 사직한 다음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1964년까지 미국에 남아 로스엔젤레스 홍사단에서 활동한다. 1964년 봄 귀국 후에는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고위직을 맡거나 한 일이 없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치는 공개장」(『사상계』 1965.1.), 「교육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기본자세의 문제(특집-한국교육 20년의 반성)」(『사상계』 1966.2.), 「존 듀이 선생과 컬럼비아대학」(『새교육』 1967.8), 『끝없는 탐구』(문예사, 1968.), 『도산의 인격과 생애』(대성문화사, 1970), 『나의 회고록』(샘터사, 1975) 등을 저술하다 별세(1983)한다.¹¹³⁾

김용제는 『새벽』지에서 활동한 이후, 오랫동안 “실용서, 전기, 대중물”¹¹⁴⁾등을 저술하거나 번역하는 것으로 살았다. 오무라 마스오의 김용제 연구를 번역한 심원섭의 「역자 후기」에 따르면 김용제는 이후 “긴 세월을 대중물 원고를 들고 출판사 사이를 헤맸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국 사회의 대낮 공간 속으로 나오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 ‘좌익 문학가로

111) 주요한, 『주요한 문집-새벽Ⅱ』, 요한기념사업회, 1982, 956~958쪽.

112) 장리옥, 위의 책, 233쪽.

113) 장리옥, 위의 책, 528~530쪽.

114) 오무라 마스오, 심원섭 역, 위의 책, 196쪽.

활동한 전력'과 태평양 전쟁기 '친일 시인'으로서의 전력('좌익'+ '친일')은 그 자신 스스로를 점점 '우익 민족주의'가 강성해져 가는 사회인 남한에서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김용제는 "친일문학과 한국작가가 쓴 일본어 작품이 적극 연구되고 있는 요즘(『역자 후기』 작성 시점·2015년 9월)조차도"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다.¹¹⁵⁾ 이런 점에서 본고가 (본고가 물론 김용제의 일본어 시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김용제의 생애의 한 특정한 국면에 대한 조사·연구를 포함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4. 『새벽』 편집진들의 1950년대 맥락에서의 특성과 의의

『새벽』의 발간 배경, 편집 특징, 편집진들의 이력과 해당 지(誌)와의 관계, 1기와 2기로 크게 나뉠 수 있는 편집 체제의 수립 및 변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들 수밖에 없는 의문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벽』지의 편집진들'은 '『사상계』 지식인 그룹'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점이 그것이다. 『사상계』가 서북계 월남 지식인들(평안도 출신)이 만든 잡지이며, 서북계의 지식인 엘리트 그룹이 견지하고 있었던 문화적 민족주의, 서구지향형 근대화주의의 영향 하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서북계 지식인 엘리트들의 정신적 원천은 도산 안창호이다.

(가) 1950년대 『사상계』 편집위원진은 장준하를 포함하여 29인이었다. 이 29인 가운데 21인이 북한 출신이며 그것도 서북 출신이 대부분이다. 또 다수가 기독교 신자였다. 또한 편집위원은 아니지만 『사상계』 지식인 집단에 포함되는 주요 필자인 함석헌, 김재준, 백낙준, 김성식 등이 북한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¹¹⁶⁾

115) 『역자 후기』, 오무라 마스오, 심원섭 역, 위의 책, 202쪽.

116)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79쪽.

(나) 한국 현대문학을 최초로 성립시킨 문인들은 모두가 평안도 출신이다. ‘서북 로컬리티’ 연구자인 정주아에 의하면,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 김억, 김소월 등 근대문학사의 외연을 만들어 낸 주요 작가들이 평안도의 평양, 정주 등에서 출생했고, 문학 활동을 포함하여 정치사회적 활동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다. 그 배경에 도산 안창호가 있음을 언급해 두자. 실제로 한국 근대문학의 대문을 열어젖힌 두 작가, 이광수와 주요한은 각각 도산의 ‘오른팔’과 ‘왼팔’에 해당했다. 이들 문인에게 ‘문학한다는 것’은 문화운동의 일종이었고 나아가 사회 계몽운동과 직결되었다. (중략) 서북 출신의 지식인들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했으며, 이러한 강한 결집력은 종종 다른 지식인 집단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파(경기 충청 출신)와의 갈등이다. (중략) 해방이 된 후 서북 출신의 홍사단계 인맥들은, 이승만이 자유당 정권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어 야당을 이루었다. 1950년대 이들은 주로 민주당 신파(장면이 수장-인용자)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안창호는 해방 전 서거했고 이광수는 전쟁 중 사라졌지만, 이 세력의 중심에는 주요한이 남아 있었다. 주요한은 해방 이후 홍사단 재건에 주력했고 정치계에 뛰어들어 1950년대 후반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4.19혁명 이후 장면 내각에서는 상공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50년대 주요한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와 이승만 정부 사이의 갈등은 해방 이전 안창호와 이승만 사이에 벌어졌던 세력 갈등, 또는 서북파와 기호파 사이의 지역 갈등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¹¹⁷⁾

안창호의 “왼팔”이었던 주요한이 1950년대에 집권 세력이었던 이승만 및 자유당 정권과 갈등한 것이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 온 서북파와 기호파 사이의 지역 갈등의 연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물론 주요한의 『새벽』이 자유당 정권과 갈등한 것이 온전히 지역 갈등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유사 국가사회주의적인 우익 일민주의’(자유당 정권) 대(對)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념형으로 삼는 우익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갈

117)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 책방, 2017, 41~44쪽.

등으로서 ‘이념적’ 갈등이기도 했던 것이다.¹¹⁸⁾ 의문스러운 것은 그렇다면 왜 주요한은 같은 서북계 지식인 그룹인 『사상계』지의 편집진들과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새벽』을 발간했는가라는 것이다. 주요한 역시 『사상계』 지식인 그룹(장준하, 김준엽, 김성한, 안병욱, 양호민, 전택부, 지명관 등- 모두 이북 출신, 김성한 이외에는 모두 평안도 출신)의 대다수가 그러했듯이 평안도(평양) 출신이다. 전후에 월남한 서북계 지식인들의 결집력과 유대감은 남달랐다. 주요한과 『사상계』 지식인 그룹의 사이가 나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주요한 역시 『사상계』에 글을 썼으며¹¹⁹⁾, 『사상계』지의 주간을 차례로 역임했던 김성한, 안병욱, 지명관 역시 『새벽』에 글을 썼다.¹²⁰⁾ 얼핏 보면 서북계 지식인들의 정신적 뿌리인 도산의 “왼팔” 주요한이 ‘『사상계』 지식인 그룹’의 일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한이 『사상계』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장준하와 김준엽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가) 4.19혁명을 통한 자유당 정권의 붕괴가 특정 정치 지도자 그룹이 이끈 것이 아니었음은 한국 현대사의 불행 중 하나일지 모른다. 4.19혁명은 자유당 정권 시기 야당이던 민주당에게 자연스럽게 권력을 ‘배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면과 주요한 등 민주당 신파가 쉽게 권력을 잡은 것이다. 이들

118) 이승만 정권은 전후 김일성 체제와 대립하는 ‘미국의 원조를 등에 업은 자본주의, 반공주의 체제’라고 설명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사실상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우파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주의’와 친연성을 가지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후지이 다케시, 『과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012. 15~19쪽.)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지배체제는 일종의 ‘유사 국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반공 체제로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체제였다. 이는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상징화하는 가족적 모델의 강경 국가주의인 ‘일민주의(一民主義)’를 보급하려 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나는 사실이다.

119) 주요한, 「권력과 부패」, 『사상계』 1958.3. 69쪽.

120) 『사상계』 주간을 지냈던 지명관과 안병욱은 각각 6번과 2번 『새벽』에 글을 게재했다. 역시 『사상계』 주간을 지냈던 소설가 김성한 역시 소설 「방황」을 『새벽』지에 게재했다.(김성한, 「방황」, 『새벽』 1957.4. 90쪽.)

선배 서북 인사들에 대해 『사상계』 그룹의 삼십대 젊은 엘리트들은 어떤 태도였을까. 대체로 서북 출신이 강한 결집력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젊은’ 월남 지식인들은 **기성세대 서북 지식인들**에 대해 어떤 불신을 품고 있었다. 이념의 줄기로 볼 때 장준하를 위시한 『사상계』 지식인 집단이 서북 선배 세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성 서북 지식인들이 일제 말 친일로 선회한 일들, 나아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은 확실히 문제로 보였고, 이에 따라 삼십대 『사상계』 지식인들은 서북 근대화 이념의 새로운 실현에 자신들이 새롭게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소명 의식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¹²¹⁾

(나) 이상하게도 굉장한 결벽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제한테 야합한 사람에 대한 그 굉장한 결벽증이라고 할까?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출신이고, 일제하고 야합한 세력이다, 하는 거에 대한 그 결벽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건 장준하 씨도 그랬지만, 더욱이 김준엽 씨가 심했던 거 같아요. 부인도 임정 요인의 딸 아니요? 일제한테 야합했던 세력에 대한 결벽증에 가까운 배타적인 감정이 있었어요.¹²²⁾

『사상계』사장 장준하와 주간 김준엽이 ‘학병 세대’¹²³⁾로서 일본군에 학병으로 징집되었다가 탈출해 “6000리”¹²⁴⁾를 걸어 충칭(重慶) 임시정부까지 가서 광복군 소속으로 미군 OSS(CIA의 전신)에서 “국내지하공작원으로 진입”하는 “특별 훈련을 받”¹²⁵⁾었다는 일화는 잘 알려진 전설 같은 이야기이다. 장준하는 자전적 수기인 『돌베개』에서 “나라를 빼앗긴 못한

121)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위의 책, 76~77쪽. 강조는 인용자.

122)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자료, 「지명관 녹취록 3」, 2012. 14쪽.(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위의 책, 206쪽에서 재인용.)

123) ‘학병 세대’의 범위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위의 책, 20쪽: “학병 대상이 되었던, 일제 말 대학을 다니던 연령층은 위로 1917년생부터 아래로 1923년생까지 1920년을 전후해 약 6~7년에 걸쳐 태어난 이들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23년 12월 1일 이전에 출생한 학생들이 ‘학병’ 모집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출생한 학생들은 만 20세부터 ‘징병’ 대상이 되었다.”

124) 김준엽, 『장정 1- 나의 광복군 시절(上)』, 나남출판, 1989, 10쪽.

125) 김준엽, 위의 책, 10쪽.

조상에 대한 한스러움”을 이야기하며 못난 조상을 두어 태평양 전쟁 기에 강제로 전쟁터로 내몰렸던 젊은 “한국 ‘학병’들”의 정신을 기린다.¹²⁶⁾ 김준엽 역시 자전적 수기인 『장정』에서 “나라 잃은 젊은이들의 고생을 생각할수록 나라를 빼앗긴 못난 조상이 원망스러웠고, 나는 그런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새삼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이었다.”¹²⁷⁾고 말하고 있다. 둘은, 평생을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¹²⁸⁾낸 사이답게, “못난 조상”이라는 똑같은 표현을 써 가며, 일제 말기 학병으로 징집되었을 때 자신들의 윗세대 조선인들에 대해 가졌던 한스러운 원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6000리를 걸어서 충칭(重慶) 임시정부에 들어갔다는 대학생 나이대의(학병 때의) 그 물리적 ‘고생’의 생생한 경험은 이 원망감에 설득력 있는 육체성을 부여한다.

공교롭게도 주요한(1900년생)은 ‘학병 세대’인 장준하(1918년생)와 김준엽(1920년생)이 공통되게 원망하는 “못난 조상”(“기성 서북 지식인”)에 해당한다. 더불어 주요한은 단순히 “못난 조상”의 세대에 속한 일 분자 정도가 아니었다. 주요한은 8.15 이후 반민특위의 심사 대상이 되었던 많지 않은 문인 중 하나이다. 주요한은 일제 시기 행정 관료나 지방 군수 등을 지내며 제국 일본의 식민지 관리 체계를 행정적, 사무적으로 보조했던 수많은 자기 세대의 ‘배운 사람들’의 평균적 수준의 ‘협력’보다는 좀 더 눈에 띄는 수준의 ‘협력’을 했던 인물인 것이다. 주요한은 스스로를 “때 묻은 사람”, “역사의 소용돌이에 번롱당한 한 초라한 인간”이라고 인식했으며 “일제가 발광하던 전쟁 말기의 최소한의 보신” 때문에 “초라한 몰골로 광복된 조국에 남게 된” 자라고 인식했다.¹²⁹⁾

‘광복군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장준하와 김준엽의 자부심은 상당했고¹³⁰⁾ 그만큼 둘의 ‘윗세대 친일 지식인’들에 대한 원망감 역시 상

126) 장준하, 『장준하 전집1-돌베개』, 세계사, 1992, 422~423쪽.

127) 김준엽, 위의 책, 200쪽.

128) 김준엽, 위의 책, 186쪽.

129) 주요한, 『주요한 문집- 새벽 I』, 요한기념사업회, 1982, 71쪽.

130) 이러한 자부심에 대해서, 장준하와 김준엽이 ‘학병 세대’로서 1945년 8.15를 대학을 졸업할 즈음의 나이대로 맞이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윗세대보다 친일 문제에

당했다.¹³¹⁾

(가) 나라의 부름 받고 가실 때에는/ 빨간 땀을 드리겠어요/ 몸에 지니
고 싸우시면/ 총알이 날아와도 맞지 않아요/

북쪽에서 돌아오는 기러기는/ 갈대 밑에 채우겠어요/ 꿈에 돌아오시는 당
신은/ 원앙침에 주무시게 하겠어요

아무르의 얼음도 여름에는 녹겠지요/ 녹았어도 소식이 없는 여름일랑/ 까
만 땀기에 하이얀 간호복 입고/ 저도 나라 위해 있는 힘 다 바치겠어요

서강 저녁놀의 타는 듯한 붉은 핏빛은/ 장렬하게 싸우다 산화하신 당신
의 피/ 무언의 개선, 마을 역 앞에서/ 하이얀 땀기 드리우고 만세를 외치겠
어요¹³²⁾

(나) 도문에서 목단강까지
우리의 열차는 대륙을 간다
역마다 헌병의 눈이 총검과 함께 빛나고
객실마다 무장한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의 귀한 고생 밑에 대륙의 평화로운 건설이 꽃피고
여객의 평안한 꿈이 결실을 이룬다.
(중략)

결부될 일이 훨씬 적은 세대였다는, 세대적 특수성을 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31) 『사상계』의 1대 주간이었던 **김성한(1919년 생, 함경남도 풍산 태생)** 역시 소설가로서, 단편 소설 「폭소」에서 송명이라는 우편 배달부가 일제 시대에 자신을 고문한 경찰관이었던 친일 인사인 한필선을 “오후 내내 갈고 또 갈아서 시퍼렇게 날이 선 식도”(김성한, 「폭소」, 『김성한 중단편집』, 책세상, 1988, 330쪽.)로 찢어 죽이는 ‘한 맺힌 복수’와 단죄의 서사를 보여준다. 이는 김성한 역시 장준하, 김준엽과 마찬가지로 지인 이복 출신 ‘학병 세대’로서 친일 문제에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사상계』 지식인 그룹이 ‘친일 인사’에 대해 강경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강했음을 알게 한다.

132) 주요한, 「땀기」, 『국민문학』 1941.11.

검은 흉조 같은 비적 때도
황군의 위력으로 그림자를 감추고
태양과 대지의 은혜 아래
태양의 황금지대를 일구고 있다.¹³³⁾

주요한의 「댕기」는 “하이얀 간호복”을 입은 화자를 내세워 태평양 전쟁기 황군으로 출정한 젊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시로 보인다. 이 시에서 병사들은 나라를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치겠다는 ‘간호사-화자’가 준 “빨간 댕기”를 품어 “총알이 날아와도 맞지 않”는 존재이지만, 이상하게도 “장렬하게 싸우다 산화”해 화자의 “만세” 추모”를 받아야 좋을 그러한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다. ‘장엄한 분위기’의 형상화에 치중하다가 ‘모순 서술’을 범해 버린 경우라고 하겠다. 김용제의 「바람의 언어」는 오무라 마스오의 해석을 빌자면,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인 “황군”과 싸우는 “중·한 항일 연합군이 “흉조 같은 비적 때”라 지칭되고 있”¹³⁴⁾는 시이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주요한과 김용제의 “호전시”¹³⁵⁾에서 ‘산화해 만세 추모를 들어야 좋을 존재들’, “흉조 같은 비적 때”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 범주가 각각 태평양 전쟁기 징집된 ‘학병들’(장준하, 김준엽)과 ‘광복군’(장준하, 김준엽)을 포함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장준하와 김준엽이 『사상계』 시절 동시대 잡지의 편집진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쓴 식민지 시기의 문학을 일부러 찾아보거나 그랬을 것 같진 않다. 이미 식민지 시기의 ‘친일 문제’ 같은 것은, 지나칠 정도로 그 시선이 ‘미래’와 ‘미래 한국의 근대화’로 정향되어 있었던 『사상계』 지식인 그룹’의 관심 영역이 아니었다. 편집진들에 대한 자세한 개인사적 배경을 모르는 상태로 보는 사람에게는, 『사상계』와 『새벽』은 아마도 ‘자매지’같은 걸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유사성을 지닌다. 상술했지만 장

133) 김용제, 「바람의 언어」, 『아세아 시집』, 대동출판사, 1942. (오무라 마스오, 위의 책, 130~131쪽에서 재인용.)

134) 오무라 마스오, 위의 책, 131쪽.

135) 오무라 마스오, 위의 책, 132쪽.

준하는 『새벽』지의 김재순 주간에게 덕담을 한 일도 있으며, 『새벽』과 『사상계』는 서로 주요 필진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이기도 했다.(대표적으로 지명관, 신상초, 김성식¹³⁶⁾ 등은 두 잡지에 모두 활발하게 글을 기고한 필자들이다.)

하지만 주요한(1900년생)이 (『사상계』그룹과 같은 서북계 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광복군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삼십 대 중반의 젊고 패기 만만한 장준하(1918년생), 김준엽(1920년생) 밑으로 들어가 잡지를 같이 하는 것은, 상술한 여러 정황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석된다. 더불어 김용제는 충북 음성 태생으로 서북계 지식인 계통의 연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요컨대 『새벽』지는 ‘서북계 월남 지식인들’¹³⁷⁾이 주가 되어 창간한 잡지라는 점에서 『사상계』와 유사성을 가지지만, 주요한(사장, 발행인), 김용제(편집장)가 소위 ‘친일’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병 윗세대”¹³⁸⁾였다는 점에서 『사상계』의 ‘학병 세대’가 중심이 된 편집진과는 세대가 다른 편집진용을 가지고 출발했던 저간의 사정이 있는 매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상계』는 서북 출신 ‘학병 세대’가 중심이 되어 만든 잡지이고, 『새벽』은 서북 출신 ‘학병 윗세대’가 중심이 되어 만든 잡지인 것이다. 더불어 『새벽』은 ‘도산 안창호’라는 서북계 지식인 계보의 정신적 지주를 이념적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사상계』와 차이를 가진다. 아마도 이는 『새벽』 편집진들이 ‘도산 안창호’라는 소여(所興)를 ‘유사 예수(성자인 동시에 희생양)화(化)’함으로써,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학병 윗세대의 ‘친일 콤플렉스’”¹³⁹⁾라는 것을 ‘상쇄(相殺)’해 보려는 한 심리 내적 방편이 아니었을

136) 『새벽』지 전체 호수에 지명관은 6회, 신상초는 12회, 김성식은 10회 글을 기고했다.

137) 주요한(평양), 장리욱(평남 강서), 김주홍(평남), 김재순(평남 대동)/ ‘김재순’은 2기 주간이지만 사실상 ‘1기 『새벽』’ 시기에도 『새벽』에 관여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문제연구소’ 총무였기 때문이다. 상기했지만 ‘국제문제연구소’는 ‘새벽사’와 같은 울지로 대성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새벽』지에 창간호부터 논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새벽』지의 주요 필자로서 『새벽』지의 ‘협연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국제문제연구소’는 『새벽』지 전체 호수 필자 별 빈도수 5위에 해당한다.

138)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위의 책, 268쪽.

까. 서북계 지식인 엘리트 계보의 수양론적 정신주의의 근원이 ‘기독교 정신’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분(도산-인용자)의 정성과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예수나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¹⁴⁰⁾라는 『새벽』지 좌담회 상의 한 발언은 이런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새벽』의 창간 초기 사장(주요한)과 편집장(김용제)이 가지고 있었던 친일 문제라는 이와 같은 ‘학병 윗세대’로서의 세대적 특성은 『새벽』이 당대적 맥락에서 가지고 있었던 매체 특성을 밝히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는 주제는 아닐 것이다. 이는 보다 큰 불륜의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할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그래도 이 주제와 관련해 간략한 서술이 필요할 듯하다. 창간 초기의 사장과 편집장이 ‘학병 윗세대’로서 친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새벽』은 같은 문제로 자유롭지 못했던 최남선, 이광수, 최재서의 글을 비중 있게 실는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남선은 『새벽』지 전체 호수 필자 별 빈도수 8위(8회)에 해당하며 『새벽』지에 ‘시조’ 여섯 편과 ‘진실 정신’(『새벽』, 1954.6.), ‘실학 경시에서 온 한민족의 후진성’(『새벽』, 1955.7.) 등의 글을 실을 지면을 제공받았다.¹⁴¹⁾ 이광수(필자 별 빈도수 9위(7회))와 최재서(필자 별 빈도수 6위(10회))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각각 『새벽』지에 ‘미발표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재되고, ‘문학 원론’을 꾸준히 연재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받았다. 이광수는 그 자신의 글만이 아니라 백세명의 ‘춘원의 ‘민족개조론’의 재구성: 진인사상과 신국민’(『새벽』, 1958.1)’과 같은 글을 통해서 “재구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는 『새벽』지의 창간자로서 편집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주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지향성의 일단을 보

139)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위의 책, 268쪽.

140) 「좌담회-도산을 말한다」, 위의 글, 『새벽』 1960.11. 36쪽.

141) 최남선, 「진실 정신」, 『새벽』 1954.6.; 최남선, 「진실 정신」, 『새벽』 1954.9.(1954.6월 호에서 재(再) 게재); 최남선, 「시조: 추색·추의·봄바람·북창·광명」, 『새벽』 1954.9.; 최남선, 「서재 한담」, 『새벽』 1954.12.; 최남선, 「내가 쓴 독립선언서」, 『새벽』 1955.3.; 최남선, 「실학경시에서 온 한민족의 후진성」, 『새벽』 1955.7.; 최남선, 「정당무용지변」, 『새벽』 1956.3.; 최남선, 「시조: 만음」, 『새벽』 1956.9.

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새벽』의 창간자로서 주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기성 서북 지식인’이자 친일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학병 윗세대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상적 지향성은 ‘1기 『새벽』의 편집 체제와 방향성’에까지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나, ‘2기 『새벽』 혁신호 체제(1959년 10월 혁신호부터)’부터는 그 영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한은 1958년 5월 2일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당선¹⁴²⁾되어 정계로 진출한 후에도 새벽사 업무에 관여하긴 했으나, ‘2기 『새벽』’부터는 새벽사 사장직을 장리옥에게 넘기고 발행인의 위치로 가면서 『새벽』의 편집 실무에서 멀어진다. 김용제 편집장 역시 상술했듯이 1958년부터는 잡지 편집 실무에서 물러났다. 이는 학병 윗세대 출신으로서의 세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장과 편집장이 모두 『새벽』의 편집 실무에서 멀어지고, ‘2기’부터 『새벽』의 편집 체제와 편집 지향성이 큰 변화를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그 변화는 새롭게 사장직을 맡게 된 장리옥의 ‘뒷받침’¹⁴³⁾ 하에 당대의 새로운 세대로서 ‘전후세대’¹⁴⁴⁾에 속하는 김재순 주간(1926년생), 이어령 편집위원(1934년생), 신동문 편집장(1927년생)에 의해 추동된다. ‘2기 『새벽』’부터 ‘수양도덕론’이나 ‘도산 사상’에 대한 내용이 줄면서 ‘흥사단계 매체’라는 느낌이 현저히 떨어지고, ‘서구의 전위적, 실험적 문학 경향(마레크 흐라스코의 『제8요일』¹⁴⁵⁾,

142) 주요한, 『주요한 문집-새벽II』, 위의 책, 956쪽.

143) 장리옥, 위의 책, 214쪽.

144) 본고에서 ‘전후세대’ 혹은 ‘전후세대 문인(지식인)’이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전후(戰後) 세대’는 1920~30년대에 출생하여, 식민지시기에 초·중등 및 대학교육을 받고, 한국전쟁을 전후(前後)한 시기에 등단한 문인들을 말한다.”(한수영,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07, 259쪽). “대체로 한국문학사의 ‘전후세대’는 1920~30년대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후세대의 중심그룹을 형성했던 1920년대 생들로는 조연현(1920), 선우휘(1922), 장용학(1921), 손창섭(1922) (중략) 등이 있다.” “아래쪽으로는 1930년대 생인 오상원(1930), 서기원(1930) (중략) 하근찬(1931), 이호철(1932), 이어령(1934), 유중호(1935) 등이 있다. 편쪽을 넓게 잡으면 최인훈(1936)까지도 이 범위 안에 든다.”(한수영, 위의 글, 269쪽. 강조는 인용자.)

145) 마레크 흐라스코, 『제8요일』, 『새벽』 1959.11.

양떠 로망, 비트 제네레이션, 앵그리 영맨 과 문학¹⁴⁶⁾’이 소개되고 한층 강경한 자유당 정권에 대한 저항 담론이 기획되는 것¹⁴⁷⁾은 이러한 편집 방침과 편집 지향성의 변화의 한 예이다. 요컨대 『새벽』은 창간자인 주요한과 1기 편집장인 김용제가 ‘학병 윗세대’로서의 세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의해 『사상계』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인적 구성과 편집 체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발간 후기인 2기에 이르러 새로운 감각과 목소리를 가진 ‘전후세대’의 평론가와 시인이 편집진에 참여함으로써, 1959년 겨울부터 4.19 정국 그리고 제2공화국 시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새벽』을 직접 읽었던 염무웅의 말을 빌자면, 한층 “진취”¹⁴⁸⁾적이고 “참신”¹⁴⁹⁾한 매체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며 담론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학병 세대’(장준하, 김준엽으로 대표되는)보다는 조금 아래 연배인 “전후세대의 지식인들”(신동문, 이어령)이 ‘학병 윗세대의 지식인들’과 ‘매체를 통한 담론 기획’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결

146) 「특집: 새로운 문학의 탐구자들」, 『새벽』 1960.1.

147) 「특집: 정권교체는 가능한가」, 『새벽』 1959.10.; 「특집: 1인 정치의 비극」, 『새벽』 1959.11.; 엄상섭, 「정치악의 연속선: 진절머리 나는 정치악의 연속선」, 『새벽』 1959.12.; 조재천, 「민력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새벽』 1960.1.; 「특집: 권력의 횡포를 막는 길」, 『새벽』 1960.2.; 「권두언: 한숨과 눈물은 우리 것이 아니다」, 『새벽』 1960.3.; 이관구, 「민의를 피 흘리고」, 『새벽』 1960.4.

148) 염무웅, 「신동문과 그의 동시대인들」, 『문학과 시대 현실』, 창작과 비평, 2010, 126쪽. 강조는 인용자.: “『새벽』은 대담한 기획과 파격적인 필자 등용으로 당시의 젊은 독자들에게 『사상계』 못지않은 호응을 받았다. 대학 신입생이었던 나 자신도 『새벽』의 **진취성**에 더 호감을 느꼈고, 선우휘의 「깃발 없는 기수」라든가 최인훈의 「광장」 또는 폴란드 작가 마레크 폴락스코의 「제8요일」처럼 6백매가 넘는 대작을 한번에 읽는 데에 커다란 흥분조차 느꼈다. 그 무렵 『현대문학』, 『자유문학』같은 문예지들의 구태의연하고 고식적인 편집에 감감함을 느끼던 문학청년들은 앞서 언급한 『세계전후문학전집』과 『사상계』, 『새벽』을 통해 세계문학의 새로운 기류를 호호하고 참신한 감각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책들을 만드는 데 실무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신동문·이어령 등임을 생각하면, 60년대 문학에 끼친 그들의 영향은 막중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49) 염무웅 엮음, 「엮은이의 말」, 『신동문 전집』, 창작과 비평, 2020, 803쪽. 강조는 인용자.: “4.19혁명이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일단 매듭이 지어지자 신동문은 월간지 『새벽』의 편집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담한 기획과 파격적인 필자 등용으로 젊은 독자들에게 『사상계』 못지않은 호응을 받았다.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던 나 자신도 『새벽』의 **참신성**에 더 호감을 느꼈고, 최인훈의 『광장』처럼 600매가 넘는 장편을 한꺼번에 읽는 데에 커다란 흥분조차 느꼈다.”

합한 특기(特記)할 만한 사례'로 『새벽』이라는 매체를 의미매김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일지도 모른다.

5. 나가며

본고는 잡지 『새벽』이 1950년대의 담론장에서 가졌던 실제적 위상과 의의에 비해 해당 매체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약소하기에 『새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새벽』에 대한 큰 볼륨의 ‘매체 연구’(‘연구 저서’ 혹은 ‘학위 논문’)의 바탕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적 소론(小論)’에 해당한다. 따라서 『새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연구사 검토를 통해 문제 제기하였고 『새벽』의 역사적, 당대적 위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본고가 단순히 ‘준비적 소론’에만 그치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본고만의 ‘소론으로서의 분명한 존재 의의’ 역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본고의 논의를, 『새벽』지의 편집진과 편집체제¹⁵⁰⁾에 관해 정밀·상세하게 연구하는 데에 집중시켜 본고만의 소론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구축하였다.

『새벽』지의 ‘발간 배경’, ‘편집진 구성의 변화과정’, ‘편집진들의 성격과 이력’, ‘편집진 상호 간의 관계’, ‘편집 체제의 수립 및 변화과정’ 그리고 ‘『새벽』지 편집진이 가지는 당대적 맥락에서의 여타 지식인 그룹과의 차이점’을 살핀 작업¹⁵⁰⁾은 『새벽』지의 매체 특성과 매체 이념을 해석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병 윗세대 지식인들’이 중심

150) 본고는 보다 큰 볼륨의 후속 연구를 위한 ‘준비적 소론(小論)’으로서, 우선 『새벽』을 당대 담론장의 유력지였던 『사상계』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당대 담론장에서의 『새벽』의 ‘맥락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익명의 심사위원분의 말씀대로 『사상계』만이 아니라 “동시대 다른 잡지들과의 중층적인 관계 속에서 『새벽』지의 편집진과 편집 체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새벽』이 동시대의 『현대문학』, 『자유문학』, 『문학예술』, 『학원』, 『여원』등의 잡지들과 어떠한 상호 맥락 관계 하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보다 큰 볼륨의 후속 연구에서 추후 연구과제로 포함시켜 수행할 것이다. 귀중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께 감사드린다.

이 되어 도산 안창호와 홍사단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새벽』은 약 6년의 발간 기간 동안 1950년대의 담론장에서 ‘수양·도덕론적 정신주의’(도산 정신)와 1950년대의 담론장의 시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적 자유민주주의’를 혼합한 ‘수양·도덕론적 자유민주주의’의 매체 이념을 보여주었고, 4.19 직전의 ‘2기 혁신호 체제’부터는 지배체제에 대한 한층 강경해진 저항 담론과 함께 전위적, 혁신적 문학의 번역·계재를 통한 ‘저항 주체 창출 기획’의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새벽』이 ‘도산 정신’과 ‘원리적 민주주의에 근거한 강경한 지배체제 비판’, ‘저항 주체 창출을 위한 담론·문학 기획’을 통해 제1공화국의 부패와 폭정에 맞서 담론적 투쟁을 전개해 나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황병주는 1950년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조병옥(민주당 정치인, 홍사단)과 유진오(법학자)의 민주주의 담론을 분석하며 이들의 민주주의 담론이 “이승만 정권과의 대립 속에서 민주주의를 통한 정권 비판, 저항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는 (중략) 대중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향을 통해 현존 권력에 대한 저항이 가능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논의하며 “이는 4.19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저항 담론화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1950년대 민주주의 확산”이 “4.19의 중요한 담론적 배경이 되었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¹⁵¹⁾ 물론 4.19가 이른바 ‘지식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된 ‘민주주의 담론’ 역시 4.19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때, 『새벽』 역시 과잉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4.19에 상당한 “담론적 배경”¹⁵²⁾을 제공한 잡지였다고 생각한다.

『새벽』의 주요한 매체 이념들(논설란, 문학란)을 상세히 분석하는 작업과 『새벽』과 ‘4.19’, 『새벽』과 ‘제2공화국’의 담론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새벽』의 주요한 매체 이념들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하고 『새벽』의 역사적(통시적), 당대적(공시적) 위상과 의의에 대해

151)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2008, 53쪽.

152) 황병주, 위의 논문, 53쪽.

상세히 논의하는 큰 작업이 후속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작업 중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보다 큰 볼륨의 후속 연구로 선보일 것
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새벽』, 『사상계』

<참고논저>

단행본

-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 ,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 책방, 2017.
- 김려실, 김경숙, 손남훈, 이시성, 『사상계, 냉전 근대 한국의 지식장』, 역락, 2020.
- 김성한, 『김성한 중단편집』, 책세상, 1988.
-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 김준엽, 『장정 1- 나의 광복군 시절(上)』, 나남출판, 1989.
- 김재순, 안병훈, 『우암 김재순이 말하는 한국 근현대사-어느 노 정객과의 시간 여행』, 기파랑, 2016.
- 김관수, 『신동문 평전』, 북스코프, 2011.
- 김호섭, 『4월혁명의 사회심리적 발생요인』, 『4월민주혁명의 재조명』, 공동체, 2010.
- 문정인, 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 사상계 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하』, 역사비평사, 1999.
- 이광수, 『도산 안창호』, 대성문화사, 1953.
- 이용호, 『주요한 연구』, 동광문화사, 2002.
- 염무웅 엮음, 『신동문 전집』, 창비, 2020.
- 염무웅, 『문학과 시대 현실』, 창작과 비평, 2010.
- 장리욱, 『백 년 전의 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장준하, 『장준하 전집1-돌베개』, 세계사, 1992.
- 정진석, 『한국 잡지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주요한, 『주요한 문집-새벽Ⅰ』, 요한기념사업회, 1982.
- 주요한, 『주요한 문집-새벽Ⅱ』, 요한기념사업회, 1982.
- 최원식, 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2002.
- 홍사단사편찬위원회, 『홍사단 오십년사』, 대성문화사, 1964.
- 『홍사단 운동 칠십년사』, 홍사단 출판부, 1986.
- 호영송, 『창조의 아이콘, 이어령 평전』, 문학세계사, 2013.
- 오무라 마스오, 심원석 역, 『사랑하는 대륙이여-시인 김용제 연구』, 소명출판, 2016.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012.

Hahn-Been Lee,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East-West Center Press, University of Hawaii, 1968.

논문

고지혜, 「사상계 신인 문학상과 1960년대 소설의 형성」, 『우리문학연구』 49, 우리 문학회, 2016.

권보드레,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김경숙, 「한국연극사에서 사상계의 위치연구—연극전문지 공백기(1950~1960년대)의 사상계 극문학 수록양상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9, 한국문학 회, 2018.

김려실, 「화보로 보는/읽는 『사상계』-1960년대 『사상계』와 혁명의 망탈리테」,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김효재, 「1950년대 종합지 『새벽』의 정신적 지향(1)」,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8.

박지영, 「냉전(冷戰) 지(知)의 균열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1950년대 후반~1960년대 전반 사상계 번역 담론을 통해 본 지식 장(場)의 변동」, 『반교어문 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이상록,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10.

_____,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_____, 「특집에 대하여」,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이종호, 「1960년대 <세계전후문학전집>의 발간과 전위적 독서주체의 기획」, 『한국학연구』 4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5.

이정은, 「4.19에 대한 대자본가의 대응과 축적방식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임지연, 「1960년대 사상계의 “세계” 이해와 세계문학 담론」, 『겨레어문학』 52, 겨 레어문학회, 2014.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 제연구소, 2011.

윤상현,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동국사학』 57, 동국 역사문화연구소, 2014.

윤영현, 「전후세대 소설의 두 양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_____, 「1950년대 사상계의 ‘중국’ 표상 및 담론 연구」, 『동방학지』 182, 연세대

학교 국학연구원, 2018.

장수경, 「『학원』의 문학사적 위상 연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정진석, 「잡지변천사」, 『신문연구』 68, 1998.

_____, 「인물로 본 한국언론 100년(13)-잡지 출판인들」, 『신문과 방송』 260, 1992.8.

정혜경, 「4·19의 장(場)과 사상계 신인작가들의 소설」, 『현대소설연구』 62, 한국 현대소설학회, 2016.

최윤경, 「『광장』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대문학이론연구』 5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최애순, 「1950년대 사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57, 우리문화회, 2018.

한수영,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 대동 문화연구소, 2007.

한영현,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본 젠더인식」, 『한국민족문화』 5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2008.

후지이 다케시, 「4.19/5.16시기의 반공체제 재편과 그 논리」,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Editorial Member and Editorial System of the Magazine 『Saebyeok』

Yoon, Young-Hyun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claims tha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magazine 『Saebyeok』 since study on the magazine 『Saebyeok』 is significant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prominence and importance of the discourse in the 1950s. This paper corresponds to the preliminary thesis to prepare the background of the large volume ‘Media Study’ (Research book or dissertation) on 『Saebyeok』. Therefore, it raises an issue on the necessity to research 『Saebyeok』 through the review of research history, and it discusses the historical & contemporary power and significance of 『Saebyeok』. Moreover, it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the editorial member and system of 『Saebyeok』.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nd research the editorial member and system of 『Saebyeok』 precisely and in detail.

The editorial system of 『Saebyeok』 can be largely divided into phases 1 and 2. Phase 1 is from the first publication (Changan-Ho) of June 1954, and phase 2 is from the innovative publication (Hyeokshin-Ho) of October 1959. Phase 1 of 『Saebyeok』 consists of ‘President Ju Yo-han, Editor-in-chief Kim Ju-heung, and Editor Kim Yong-je.’ As for innovative publication in phase 2, it consists of ‘President Jang Lee-wook, Editor-in-chief Kim Jae-soon, and Publisher Ju Yo-han.’ Moreover, Shin Dong-moon and Lee Eo-ryeong were also members of 『Saebyeok』 editorial staff who made an attempt to ‘Plan for the formation of resistant

reading subjects' through the literature section of 『Saebyeok』 phase 2 innovative publication system. The editorial staffs of 『Saebyeok』 have similarities in their 『Sasanggye』 in terms of regional connection - having the same origin as Northwest. However, they show a contrasting difference from the generational aspect. The initial editorial staffs of 『Saebyeok』 (The president and chief editor) are the 'intellectuals who are the upper generation of student soldiers' being unfree from Pro-Japanese issues. This paper discusses such point as a characteristic of the editorial staff of 『Saebyeok』 in the context of the era. The establishment & change process of 『Saebyeok』's editorial member and editorial system and the effort to look in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editorial member of 『Saebyeok』 and other intellectual groups in the contemporary context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narrating media characteristics and ideology of 『Saebyeok』 in analytical aspect.

『Saebyeok』 is a magazine that attempted to inherit the ideology and spirit of Dosan Ahn Chang-ho and Heungsadan with 'Intellectuals as upper student-soldier generation from the Northwest Korea' at the center. During about 6 years of the publication period(1950s), 『Saebyeok』 unfolds the 'Self-cultivation & ethical liberal democracy,' which is the combination of 'Self-cultivation & ethical spirit'(Dosan spirit) and 'Cold war liberal democracy' that describe the discourse in 1950s and from the phase 2(Innovative publication system) it developed a strong discourse plan especially to create resistant subjects. 『Saebyeok』 can be seen as a discursive struggle against the corruption and tyranny of the First Republic through 'Self-cultivation & ethical liberal democracy' and 'Project to create resistant subjects'.

Keywords: Saebyeok, Sasanggye, 1950s, 4.19, Ju Yo-han, Dosan Ahn Chang-ho, Kim Yong-je, Jang Lee-wook, Kim Jae-soon, Shin Dong -moon, Lee Eo-ryeong

윤영현

소 속: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silverspin@nate.com

논문투고일 2023. 02. 10 / 심사완료일 2023. 03. 10 / 게재결정일 2023. 03. 17